



眞理正義
自我進就

濟大新聞

발행인 高長權 주 간 安成洙
부주 간 高榮哲 편집장 鄭龍卜
발행소: 제주대학교 신문사
(690-756) 제주시 아라동 산 1번지
전화: 54-2278~9 / FAX 56-2204
인쇄: 한라일보사

제528호

(주간)

[1954년 5월 27일 창간]
[1986년 4월 28일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The Che-dai Shinmoon

1995년 5월31일 수요일

1

제2의 창학정신으로 미래에 도전하자

개교 43주년 기념사

친애하는 제대인 여러분!
우리는 오늘, 뜻깊은 개교 43주년을 맞이하여 벽찬 감회와 밝은 희망에 부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혹의 나이를 넘어서 우리 제주대학교는 이제 막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한 힘찬 진군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우리 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내빈 여러분! 그리고 제대인 여러분!
우리 대학교는 지난 43년 동안 제주 지역사회의 명실상부한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그리고 제주도 유일의 종합대학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고급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선배들이 그동안 열성을 다해 쌓아



총장 고광권

올린 숭고한 전통과 진리의 숨결이 지금도 교정 가득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과 소망은 아직도 먼 곳에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는 기필코 21세기의 명문대학으로 성장하여, 세계 속에 한국을 심고, 민족 속에 제주인의 혼을 심는 미래의 상아탑으로 우뚝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는 개혁의 씨를 뿌려야 할 시대적 사명감과 책무가 주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의 모든 대학이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첨단 과학기술이 국운을 좌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 대학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뜨거운 애교심으로 단결하여 대학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작년부터 우리가 거고적으로 벌이고 있는 대학발전기금 조성운동은 제주대학교의 운명을 결정해 주는 귀중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모금운동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어 우리 대학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자타가 공인하는 특성있는 대학을 만들어서 세계의 지성인들이 찾아오는 매력적인 학문의 전당으로 건설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든 제대인의 꿈과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애하는 제대인 여러분! 역사의 주체는 언제나 기다리는 자의 몫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창조하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라고 믿습니다. 세기말의 중대한 전환점에 서서 우리들은 과거의 역사를 경허하게 반성하고, 다가올 미래의 역사를 알차게 준비하는 승리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힘차게 일어서서 제2의 창학정신으로 미래에 도전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제주대학교를 세계화의 대열로 당당히 인도합시다.

다시 한번, 개교기념일의 숭고한 뜻을 새기며, 그동안 대학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제대인 가족 여러분과 특히, 우리대학교 발전기금 조성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제주대학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푸르름의 노래

-개교 43돌 『제대신문』 창간 41돌에 붙여

문 총 성

제주 동박새 푸르르르
저무는 5월 천지를 갑자기 젖어 놓으면
푸르름은 나뭇가지에만 출렁이는 게 아니구나
뒤돌아보면 험난했던 역사 역어은 40여년
역사의 거센 물구비 감돌 때마다 참으로 처절했구나
때론 불의에 맞서 분연히 일어섰고
때론 인간다운 삶 눈물 속에서 꿈꾸며
겨울바다에 파도일 듯 불연에 시달렸구나
1995년 5월 27일
아라캠퍼스엔 푸른 바람 푸르름 하나로 출렁이느니
濟大들 마음까지 푸르름으로 출렁이게 하느니
세계화시대
새 길을 찾아라
2천년대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이므로
우리의 혼 병들게 하는 세파 더욱 거세어져도
아랑곳 말라 뜻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으므로
우리가 사는 세계 참으로 사랑하자
비록 가짜와 거짓이 우글거려도
그것이 우리 뜻이 아니라 하지만
우리의 슬픔 깊게 하라 절망하라 그리고 파괴하라
땀 흘려 배워야 할 것이 앞서 간 사람들
글썩기와 글 쓰기로 꿈꿨던 세계만일가
사랑과 믿음과 꿈이 넘쳐나는 세상
가난과 거짓과 고통이 넘쳐나는 세상
원자력 발전소 여기저기 생겨나도 캄캄한 세상
캄캄한 어둠 깨우는 종소리 듣는 자가 아니라
그 종소리 만들어 내는 자
오, 창조하는 자만이 위대하여라!
목마름 속에서
그리움 속에서
자유와 평등과 박애가 넘쳐나는 세계 향해
새 길 열며
한 시대 이끌어 갈
그런 공부
그런 인간 공부를 하자
젊음에 불을 질러 불태우며
보아라 푸르름은 나뭇가지에만 출렁이는 게 아니구나
제주대학이여, 제대신문이여!
새 역사 새 학문 창조하는 주인공으로 우뚝 서라
언제나 어디서나

◇약력

△1938년 제주시 출생 △한국외국어대 외대 대학원 불어과 졸업(문학박사) △『문학과 지성』에 「제주바다」등 시 작품을 발표하면서 문단 데뷔 △시집으로 『제주바다』, 『섬에서 부른 마지막 노래』 『내 손금에서 자라나는 무지개』, 『떠나도 떠날 곳 없는 시대에』, 『방아깨비의 꿈』, 『설문대할망』 등 다수 △『Baudelaire의 시의 상상세계』 1·2·3등 논문 다수 △현재 제주대 인문대 부교수.

‘효담교수회관’ 지난 27일 개관

2개 세미나실·교수식당등 시설 갖춰

우리대학 교수회관이 지난 5월 27일 ‘제43주년 개교기념일’에 맞추어 개관테이프를 끊었다.

건립기증자인 고세진회장의 아호를 따서 이름붙여진 ‘효담교수회관’은 고세진(전 13대 국회의원, 우주종합건설(주)) 회장이 지난해 5월 교수연구의 욕을 고취하고 대학교육의 발전을 위한다는 취지로 우리대학에 ‘교수회관 건립기증서’를 전달하여 착공에 들어간 후 1년만에 완공된 것이다.

중앙도서관 서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교수회관은 총15여원의 공사비를 들여 지어진 것으로 연면적 3백70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5개의 연회실과 2개의 세미나실 및 교수식당 등을 갖추고 있다.

교수회관의 층별 현황을 보면 △지하에는 중앙도서관 매점과 인문대 매점을 통합하여 24시간 운영될 종합매점(109.55㎡), 교수휴게실(51.66

㎡), 지하홀(38.4㎡), 기계실, 창고 등이 위치해 있고 △1층에는 식당(147.1㎡), 세미나실(111.1㎡), 주방(51.7㎡), 관리사무실(23.4㎡), 세미나준비실(18㎡) △2층에는 연회실1(55.6㎡), 연회실2(36.8㎡), 연회실3(37.6㎡), 연회실4(23.4㎡), 연회실5(18㎡), 세미나실(11.1㎡), 준비실(19.7㎡), 휴게홀이 배치돼 있다.

교수회관에 배치된 세미나실과 연회실은 교수들이 각종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교수들의 컴퓨터로써 처리해볼 새로운 연구의욕을 고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하매점은 뒷문이 중앙도서관과 통해 있어 도서관 매점과 인문대 매점이 통합돼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교수회관 복지시설운영과 관련하여 후생과 관계자는 “교수식당은 교수전용식당으로 외부인

사 초청이나 접대시에 이용될 예정이나 아직 내부시설과 운영방안이 계획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지하매점은 늦어도 올해 2학기 개강전까지 임대운영

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교수회관내 설치된 두개의 세미나실(각 50명정도를 수용가능)은 1백명정도 참가하는 세미나실로 사용하기에는



◇지난 5월 27일 있었던 효담교수회관 개관식.

교수초빙

1.초빙분야

학 과	분 야	학 과	분 야
중어중문학과	중국어문법, 중문학(시분야 제외)	수학교육과	위상수학
사학과	한국사(지역사강의가능분)	컴퓨터교육과	운영체제
미술학과	서양화	해양학과	해저중생학
법학과	민법 및 국제사법	수학과	해석학
관광경영학과	관광사업론(관광영어회화강의가능분)	전산통계학과	Data Base
무역학과	국제경제통합론	정보공학과	Pattern Recognition
사회교육과	국제경제통합론	전기공학과	계측(작용)이론 및 응용
(지리교육전공)	도시지리학(GIS강의가능분)	화학공학과	무기공업화학
		계	17개 분야

2.초빙인원:분야별 각 1명

3.자격: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다만, 서양화는 석사학위 소지자도 가능함.

4.제출서류

가.이력서(명함사진 첨부, 지원분야 및 전화번호 명기) 1부

나.학력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원본 각 1부.

다.경력증명서(이력서상의 경력적)1부

라.연구실적목록(제목, 연구자, 발표년월일, 발표지 및 논문개요 기재-국문으로 작성) 1부

마.연구실적물

1)최종 학위논문 1부.

2)학위논문 이외에 '91.6.1이후 발표된 연구실적 원본 1부(논문 등 300%이하)

※300%의 범위안에서 심사하므로 심사를 원하는 연구논문(실적)과 연구실적목록에 '심사용'이라고 표기할 것.

바.외국어로 된 각종 증명서는 번역문과 함께 필히 제출할 것.

사.성적증명서에는 진과적 평균성적(백분율)이 기재되어야 함.

5.서류접수기간:1995.6.17(토) 13:00까지(우편접수도 13:00까지 도착한 것에 한함)

6.서류접수처:690-756 제주시 아라1동 1번지 제주대학교 교무처 교무과

7.기타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면접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나.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공채지침에 의함.

다.기타 상세한 것은 본교 교무처 교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람.

(☎ 064-54-2012, 55-6204, FAX 064-55-6130)

1995. 6. 1

제 주 대 학 교

95학년도 제2학기 수강신청공고

1. 개강일 : 1995. 8. 21.
2. 수강신청 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정	대 상	장 소
수강신청 기간	'95.5.31~6.13	재 학 생	각 학과
수강신청 변경 기간	'95.8.21~8.26	변경사유 발생자	"

3.수강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가.교필 및 전필은 수강신청 서식에 미리 기재하였으나 선택교과목만 수강신청(복학자는 종전 방식, 수강자가 교필 및 전필을 초과목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사선으로 표시 후 여백에 초과목으로 신청 가능)

나.재학생 전원은 지정된 기간내에 반드시 수강신청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은 일체 수강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수강신청은 학과장 및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관련규정에 의거 수강신청한다.

라.수강신청서 작성은 관련자료 및 작성요령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관련자료:수강편람, 교과목개요, 교과과정개설표, 수강반일람표, 수업시간표)

마.수강신청서는 소속학과로 제출하여 소속대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수강신청 변경은 학점초과 취득대상자, 학점제한 취득대상자, 폐강교과목 신청자, 수업시간 및 수강반(합·분반)조정으로 인한 수업시간 중복자, 전산입력 착오자에 한하여 변경기간 중에 허가하며,

사.타학과 교과목(일반선택 교과목) 및 체육실시 교과목(볼링, 테니스, 탁구, 농구, 배구, 축구, 소프트볼, 리듬운동)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지 아니한 교과목은 삭제 조치할 방침이며,

아.수강제한 교과목은 반드시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수강이 인정되므로 수강신청기간내에 담당교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수강신청 변경기간 후에도 시간중복자가 발생하는 중복교과목을 삭제할 방침이나 시간중복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람,

차.당초 취득한 성적은 재이수 신청과 동시에 삭제처리되며, 재이수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재이수년도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본인에게 돌아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수업시간표 및 수강편람

전학년 (교양, 전공)수업시간표 및 수강편람은 각 대학별·학과별로 게시하고 있으니 수강신청시 참고하기 바랍니다.

교무처 수업과

社說

미래의 개척자가 되자

-개교 43주년에 부쳐

우리는 지난 5월27일 개교 43주년을 맞아 펼쳐진 다양한 개교기념 행사를 통하여 대학이 발전되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학사업 등 대학발전에 공헌한 인사와 학교발전 기금을 출연한 35명의 외부인사에 대한 감사패 수여, 학교의 발전에 대한 공헌도가 큰 인사에 대한 명예박사학위 수여, 교수의 연구 발표나 토론의 장으로서 기증된 호담 교수회관의 개관식, 그리고 공덕비 제막식 등 풍성한 행사들이 다채롭게 거행되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대학의 변화한 모습과 아울러 동인들이 대학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음을 엿볼 수 있어 여간 흐뭇하지 않았다. 이는 제주대학교가 명실공히 제주문화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산실인 동시에 제주도의 발전을 이끄는 정신적 표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기쁨에만 젖어 있을 수 없는 시점에 있다. 현재 우리대학교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세상 일에 미흡하지 않는 불혹(不惑)의 나이에 비추어 부끄럼이나 모자람은 없는가를 성찰해보아야 한다. 그럼으로써 향후의 보다 차원 높은 성장과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고 21세기의 정보화시대, 무한경쟁 시대에 미리 대비해 나가야 한다.

우리 대학도 이제는 미래의 세계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사전 준비를 해야 할 때다. 오직 진리탐구(연구)와 교육, 그 결과에 바탕한 사회봉사 등 대학 본연의 사명에 더욱 충실을 기함으로써 그동안 기록해 온 성장과 발전을 한 단계 더 높이 끌어올리는 도약이 필요하다.

개교 43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도약을 위하여 다음 몇가지 사항을 제의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발전계획의 보완과 수립이 필요하다. 92년도에 수립된 학사부본 장기발전 계획은, 충분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가운데 수립되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여 이를 현실화시켜 나가야 한다. 학교시설에 대한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시설 종합발전계획은 95년 2월까지 수립키로 되어 있으나 배치계획안만 한번 제시되었을 뿐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다른 아닌 정책과 계획의 부재라 말할 수 있다. 조그마한 집을 짓는데도 설계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제 대학 구성원의 지혜를 모아 대학의 양적 팽창보다 대학교육의 수월성 추구와 연구의 활성화 등 대학의 질적향상에 초점을 두어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대학 구성원 모두가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일이다. '답'의 철학'을 위상 정립의 기본으로 삼아 대학 구성원 모두가 '답'의 철학'을 확고히 가지면 대학다운 대학의 자세가 견지될 것이다. 최고책임자는 책임자답게, 교수는 교수답게, 직원은 직원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책무를 다할 때 대학의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에 본이 될 것이다. 어느 한 구성원이라도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 결과 결실들이 되어 우리의 꿈과 이상을 향한 진리탐구의 길로 바르게 나아갈 수가 없다.

셋째, 대학 스스로의 자기개혁이 필요하다. 대학평가인정제도의 도입, 전면적인 대학정원의 자율화 문제, 교육시장 개방 등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대학 자체의 대응력과 자생력을 증진시켜 나가기 위하여 과감한 대학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전개해 나가야 한다. 교과과정의 개편, 유사학과와 통폐합, 실험실습 기재의 공동관리 등에 관하여 개개 교수들의 개인적 이해관계나 사심(私心), 그리고 집단이기주의 또는 분파이기주의를 스스로 절제하면서 주변의 개혁과 자기변신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대학의 미래가 걸린 대학발전추진회의 활동에 대학 구성원과 동문 모두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제주도민들은 제주대학교의 발전과 제주도의 발전이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대학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다양한 정보와 교육시설 등을 과감히 개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은 발전기금 조성에 더욱 더 노력하고 발전기금 출연인사에 대한 예우와 기념비 건립 등을 통하여 출연의 참모를 제주대학교의 역사 속에 길이 보존하고 후세에 알리기를 바란다.

개교 43주년 축하

오늘 모교 제주대학교 개교 43주년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교장 권 총장님을 위시하여 자리를 함께 빛내주시는 김형욱 전총장님과 많은 내빈을 모시고 제대인 가족 여러분 앞에서 2만3천 제대동문을 대표하여 축하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동문들은 개교 40주년이 넘어섰을 때부터, 개교 기념일이 돌아오는 날이면, 모교의 여제와 오늘을 되돌아보면서 모교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몇가지 지적하고 모교 총장님께 건의를 드려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함이 있음에 대하여 오늘 또다시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대학교를 무엇보다 명문대학으로 하루속히

명문제대 건설에 온 동문이 결집해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우수한 교수진의 확보와 전문적 학술 연구시설 등의 뒷받침이 더 있어야 하겠습니까. 한가지 방안으로는 국내외적으로 저명한 세계적인 석학 교수를 초빙하여 강의를 하는 방안도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우수한 교수의 양성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재학생 때부터 교수요원을 선정하여 전문적 학술 연구를 수행토록 뒷받침함으로써 모교출신이 강단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번째는 교수와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연구·실험실습 시설 등의 현대화, 첨단화와 확충이 시급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대학교를 무엇보다 명문대학으로 하루속히



김창진

학을 위한 버스운행 방안입니다. 재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과중한 학비 부담을 덜어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제주대학의 지정학적 측면에서 대학경영의 내실화가 절실합니다.

세번째는 원거리 재학생들의 통

노래방시설까지 동원...노는 곳 아니다
일요일 캠퍼스개방 고려해야

지난 일요일에 난 학교에 일이 있어서 올라왔다. 조금 흐린 날씨 이긴 했지만, 일요일에 학교 도서관을 오르는 기분도 편함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학교에 나왔는데 이게 웬 소란일까? 체육관 주변 언덕 가득히 어떤 단체에선가 와서 야유회를 하는 모양인데 시끄럽게 노래를 불러대고, 춤을 추고 거기에 노래방 시설까지 갖추고 와서 노래자랑까지 하는 모양이었다. 거기에 더 추해보이는 것은 잔디밭위에 널려진 수많은 술병들이었다. 신성한 대학의 캠퍼스에서 대낮에 술마시고 떠돌고 정말 가관이었다. 어떻게 해서 그 단체가 우리 학교에서 그런 모임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학교 학생으로서, 불쾌한 기분까지 들었다. 일요일에도 도서관을 찾는 여러 학생들도 모두 그러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의 잔디밭은 학생과 교수가 어우러져 열렬한 토론을 벌인다는 지 학생들의 건전한 놀이문화화를 여는 곳으로써 이용되어질 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다. 대학을 회사 야유회의 장소로 택한 담당자도 이해할 수 없고, 공부를 하러 올라가는 학생들이 뻔히 보이는 앞에서 술마시고 노래하는 사람들도 더 이해가 안된다.

일요일의 조용한 대학 분위기를 기대했던 나는 불쾌감만 가지고 학교를 내려갔다. 앞으로는 이러한 추태가 학교에 어느 곳에서도 행해지지 말았으면 좋겠고, 아울러 대학 캠퍼스 학생들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은 여러 학생들도 잘 알고 있었지만,

잔디밭이 그냥 웃고 떠드는 곳으로 이용되기 보다는 고뇌하는 젊은이들의 열띤 토론의 장으로, 따사로운 햇빛이 내리쬐는 날이면, 독서토론의 장으로도 이용되는 모습일 것이다.

넓고 아름다운 캠퍼스를 자랑하

는 우리 대학이 그 규모에 비해 학생들의 이용이 부진한 것 같다는 생각이다. 오월의 문턱을 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캠퍼스에 아름다운 젊음의 열기가 가득 하길 기대해본다. (김소현 국교1)

독자의소리

'독자의 소리'는 학내의 불합리하고 비민주적 요소의 개선을 바라는 목소리, 모순된 사회를 고발하는 가슴 뜨거운 목소리, 제대신문 기사에 대한 비판·격려의 목소리들을 담은 독자 참여공간입니다. 늘 열린 지면으로 여러분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고분량: 3매내외, FAX: 56-2204)

불행을 돕는 것은 아름다운 것

백혈병 학우돕기 모금 모습을 보고

일주일전 축제분위가 대학 곳곳에 보이기 시작할 때이다. 아침 강의를 들으러 버스에 올랐을 때이다. 교문 앞 2~3m앞에서 몇몇의 학생들이 종이를 나눠주고 있었다. 여느때처럼 광고 아니면 무슨 프린트일까라하고 그냥 스쳐 지나갔다. 그러고는 몇발자국 안가서 두 학생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한명은 커다란 흰 상자를 들고 있고 한 학생은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었다. 자세히 들어보니 농학 과 한 학우가 백혈병이라서 서울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돈이 모자란단다. 그래서 성금을 하고 있으니 성금 또는 헌혈증서를 부탁한다는 말이였다. 눈물이 났었다. 내 주위에 그렇게 불치의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그런 친구를 돕기위해 학우들이 있다는 것이... 하지만 가슴이 더욱 아팠던 것은 그 옆을 무뎠던 채로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었고 주머니에 만원짜리만 있다가는 이유로 그속에서 그냥 지나치는 나,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그 사람들도 나와 같은 처지일까?

그리고는 점심시간이다. 매점에서 물 사고려다 선반에 갔을 때이다. 거기에도 식당앞에 몇 학생이 서있고 그 앞에 상자가 놓여 있었다. 매점에서 연습장 사고 잔돈을 바자란단다. 그래서 성금을 하고 있으니 성금 또는 헌혈증서를 부탁한다는 말이였다. 눈물이 났었다. 내 주위에 그렇게 불치의 병을

히 돈이 들어있었다. 그것을 보고 내 소중한 마음이 그 안에 넣는 순간 비록 내 모든 돈을 다 내놓을 수는 없었지만 아침의 답답함보다 무엇이 터지는 듯한 기쁨을 얻을 수 있었다.

아직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일이 많이 있는 것이다.

(신민경 국교1)

'우등생...해법수학으로 공부합니다'

현혹광고 규제돼야

한겨레 신문을 보니 학습지 선전 광고 문구에 이런게 있었다. '우리나라 우등생의 대부분은 해법수학 학습지로 공부합니다.' 공부 못 하는 자녀를 둔 부모가 이 문구를 봤다면 '혹하고 넘어갈 만큼 상당히 자극적인 말이다.

(윤선미 국교 1)

농민들의 힘 될 수 있다면

학도들은 발벗고 나서야 한다

6월2일부터 6일까지 제충협 차원에서 농촌활동을 간다.

언제나 이맘때쯤이면 각 단대에선, 학생회관에서 농활에 대한 수많은 자보들이 붙여지고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어찌든 매달리다시피 권유를 하며 농활가자고 한다.

나 또한 이제까지 농활 한 번 못 가봤지만 이번에는 꼭 가볼려고 생각했고, 그래서 후배들이 보이면 농활가자고 얘기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후배들은 "피곤해요, 열골타요"라는 이유로 일축해버리기 일쑤이다. '시간이 없다'는 말이 아닌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더욱 난감하지만 어찌 "에, 꼭 갈게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라는 말을 들을 때면 흐뭇하고 대견스럽기까지 하다.

수입개방저지를 위해 학생들이

'대부분'이란 말이 어느 정도인지 애매한 부분이 아닐 수 없지만 최소한 50% 이상임에는 틀림없다.

이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일어나는 소비자에게서의 부작용(예를 들면 그 말을 듣고 우리 아이들이 해법수학 학습지로 공부하면 우등생이 될 수 있을 거라 믿고 돈을 투자하여 그 학습지를 구매했지만 성적 오르지 않은 데서 오는 실망감과 배신감) 또한 무시 못 할 일이다.

물론 그 만큼 학습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데서 오는 신뢰감의 표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러한 광고에 현혹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바람직한 소비자(수용자)의 자세가 아닌가 싶다.

(윤선미 국교 1)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삼성

국내건설업의 세계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제4회 삼성「건설논문상」현상공모

삼성건설은 건설분야의 기술력 향상과 저변 확대를 통해 국내건설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국내 및 해외 유학중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우수 논문을 폭넓게 공모합니다.

공모요강

1. 참가대상

●국내 및 해외 유학중인 대학(원)생
(95년 8월 31일 현재 재학중인 학생)

2. 응모기간

●1995년 8월 21일~8월 31일

3. 응모주제(8개 주제 택일)

●국내 건설업계의 바람직한 중장기적 성장모델에 대한 제언

●국내 건설업계의 선진 건설시장 진출 확대방안 (미국, 일본, EU 등)

●국내 시장에서의 바람직한 관리기능 정립 방안

●국내 협력업체의 「기초와 원칙」 준수 유도 방안

●국내 건설기술력의 현위치 분석 및 향후 바람직한 육성 방향 (시공, 설계, 엔지니어링, C.M.P.M 등 각 분야중 택일)

●국내 건설업계의 품질향상을 위한 시장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21C에 대비한 미래형 부합단지 개발 방향에 대한 제언

●GR에 따른 건설업계의 환경문제 대응 방안

4. 응모요령

●A4용지 30~40매 내외 분량으로 워드 프로세서 이용 작성제출 (원고용지나 학교명, 표시된 리포트용지는 사용불가)

●원본 및 사본 2부씩 3부 제출

●제출증명서 및 통장 원인인 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시

5. 시상내역 및 수상자 특징

●시상내역

-최우수상(1명): 상패 및 상금 500만원, 부상(시제)

-우수상(4명): 상패 및 상금 300만원, 부상(시제)

-장려상(5명): 상패 및 상금 100만원, 부상(시제)

●특전

-우수상 이상 입상자에게는 일본 견학 기회(3박 4일) 부여 및 당사 입사 희망시 우대.

단, 해외 우수상입상 수상자에게는 회향에 따라 국내 왕복 항공권 제공으로 대체 가능.

-해외 우수상 전원을 대상으로 친목회를 결성하고 정기 모임 지원 및 회사와 유대관계를 갖도록 함.

제3회 수상자 일본견학

최우수상 서울대학교 이재성

우수상 충북대학교 장병민, 최재은

충남대학교 김규용

6. 작품심사

●1차: 삼성건설 자체 심사

●2차: 삼성건설이 위촉하는 각 주제별 권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7. 입상자 발표

●1995년 10월 14일 입상자에게 개별통지

8. 시상식

●1995년 10월 18일(삼성건설 창립기념일)

9. 제출처

●우편번호 135-0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77-25 경남타워빌딩 강남사서함 1430 삼성건설 기획팀 (우편접수도 가능하며, 마감일전 도착분에 한함)

10. 기타

●수상을 하지 못한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15만원)

●응모작품은 다른 간행물이나 논문집 등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국내외 저지나 논문을 인용할 경우 반드시 원문을 밝혀야 함.

●입상논문의 저작권은 삼성건설에 귀속되며, 응모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해외 유학생은 한글 작성을 원칙으로 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삼성건설 기획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TEL: 527-1740~4, 1836)

SAMSUNG

삼성건설

기획논단 해방 50년과 한국의 과제④ — 대학교육 50년의 반성과 지향점

양적성장·천편일률운영 등으로 총체적 위기 초래
재정난 해결·자율성 확대...대학내부 개혁도 시급

1

한국의 대학교육은 광복후 폭발하더니 피한 국민들의 교육열과 6·25동란시에 도입한 대학생 병역연기를 계기로 양적으로 급격히 팽창하여 왔다. 지금 인구에 대한 대학생 수가 미국, 캐나다 다음으로 세계에서 3위를 점하며, 4년제 대학만을 택했을 때는 미국, 호주, 캐나다 다음으로 학생수가 많은 상황을 낳고 있다.

대학교육의 팽창이 정부의 재정적 뒷받침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거의 전적으로 학부보 무



양진건
교과과정조교수

담에 의하였으며 특히 등록금 수입에 대학재정을 의존하는 사립대학에 대하여 정부가 교육의 질과 취업문제를 염려하여 양적 팽창을 억제하는 정책을 지금까지 취하고 있지만 대학생 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 대학교육의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세계의 많은 나라들 특히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초·중등교육의 보편화 단계를 거쳐 고등교육 단계의 대중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날로 상승하고 있는 국민의 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고등교육제도를 확충하고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와 균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해방이후 한국의 대학교육 발전과정 또한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초기의 엘리트 중심교육체에서 대중교육체로 전환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해방 당시 7,000여명에 불과하던 대학교육 인구는 90년대 들어 150여만 명을 초과하고 있어서 45년 동안 무려 190여배의 양적 팽창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학교육의 기본기능은 사회에 필요한 인재의 발탁과 육성에 있다고 주장하는 엘

리트 중심체제론자들과 교육은 국민 모두의 관심사이며 대학교육도 예외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대중화 고등교육체제론자들 간의 첨예한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방대학의 적극적 육성이나 졸업정원제의 실시, 대학신입생 선별제 등의 대학의 자율권 박탈 등을 통해 한국의 대학교육은 1980년대 이후 대중교육단계로 진입하였다. 이와같은 사실은 대학교육의 목적과 기능은 물론 그 구조와 운영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며 새로운 변화와 적응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과정에서 양적 팽창에 급급한 나머지 대학교육이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할 수월성의 보장이나 질적 향상을 위한 대학 자체의 노력과 정책적인 노력이 미흡하였다는 사실이다. 특히 1981학년도부터 7년동안 실시한 졸업정원제의 기간 동안 대학재정의 확보가 수반되지 않은 대학교육의 급격한 양적 팽창은 질적 저하를 초래하였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의 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지나치게 양적 확대를 함으로써 현재의 고등실업률을 양산하였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는 한국 대학교육의 양적 확대도 따지고 보면 학력 인플레이션만 조장했을 뿐 일반 국민들의 교육수요에 불응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조직·성장되어 온 것이리라 보다는 그와 상관없이 교육운영, 정치적 개혁, 학생집단 등의 집단적 이해관계 사이의 갈등과 반목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혐의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학교육의 양적 확대라는 문제는 대중교육체로의 전환이라는 맥락에서는 분명 기여한 바가 컸으며 이로써 한국교육의 구조는 초등교육의 의무화, 중등교육의 보편화, 고등교육의 대중화라는 골격을 갖추게 된다.

따라서 이제 한국의 대학교육은 양으로부터 질로 관심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차후 전개될 한국 대학교육의 방향성과 깊은 관련을 맺게 된다. 그 방향성은 맨처음 '1987년 말 교육개혁심의회'가 정부에 건의한 10대 교육개혁 가운데 '대학교육의 수월성 추구'라는 과제로 제시되었는데 그 대강의 요지는 고등교육과 국가발전의 관계, 교육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고등교육개혁, 산업계의



◇김영삼대통령이 지난 5월31일 청와대에서 이종구 국무총리 등 각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개혁안'을 보고받고 있다.

품질관리 선도, 대학교육 방향의 재검토, 대학의 사회에 대한 책무성 인식 등으로 이제 대학교육의 질관리에 관심이 고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95년도에 들어 논의가 활발한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대학교육 개혁 역시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다. 그 대강의 내용은 결국 질적인 대응이 전혀 안되어 있는 양적 일변도의 저질 성장의 문제에서부터 대학교육 내용의 기능적 특성을 무시한 전국 대학의 일률적인 교육과정의 편제, 경쟁력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방만한 운영, 자기의 보신이나 이익추구에만 관심을 보일뿐 자기혁신을 통한 학문탐구에는 게으른 일부 교수요원들의 문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휘해야 한다는 자신들의 책무에는 관심이 없는 행정요원들의 무관심과 비전문적인 무지, 대학을 자신들의 주장 관철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거나 무절제한 향락의 장소로 보려는 일부 학생들의 이기심과 무관심, 교육부 당국의 근시안적인 통제 일변도의 정책 등이 총체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대학교육의 질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때마다 부딪히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대학재정난이다. 개략적인 수치로 95년 현재 중앙정부 일반회계 교육재정 지출내역이 대략 7조원을 넘는데 이중 대학교육행정과 정책비는 0.017%에 불과한 1,300억원 정도이다. 국·공립대학은 사립에 비해 나은 편이어서 전체 예산의 50%는 국고부담, 학부보부담이 45%, 용역, 기부금, 기타수입이 5%를 차지한다. 사립의 경우는 국고부담 1%, 학부보부담 80%, 재단 5%, 용역과 차입금이 14%를 차지하고 있어 교육비의 대부분을 납입금에 의존하

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사립대학에 대한 연간학생 1인당 정부지원금이 20달러에 지나지 않는 데 비해 세계 대학의 평균 정부지원금은 선진국, 후진국을 망라하여 2,060달러이다. 최근 교육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난항을 겪는 것도 다름아닌 재정의 문제이며 따라서 이 문제야말로 국가차원의 특단적 조치가 요구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가하면 한국 대학들은 하나같이 개별 대학 고유의 기능적 전문성과 개성과는 거리가 먼 획일적 평등체제로 빠져 있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 배출이 불가능한 형태가 되어 있다. 입학정원에서부터, 입학시험의 방법, 심지어 입학시기까지 대학 자체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란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같은 정부의 대학통제와 대학의 의타주의가 이루어낸 한국 대학교육의 풍토는 대학교육내용에까지 영향을 미쳐 전국의 대학이 똑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기형적인 형태를 보인다. 지역별 역점 육성에 의한 기관별 특성화나 이에 따른 대학간의 역할 분담, 심지어 전체 대학수의 75%에 이르는 사립대학의 건학정신에 따른 특성화도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경쟁체제 확립을 통한 대학의 질확보는 요원한 실정이다. 이 문제와 관련 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국가차원의 과감한 규제 철폐 조치가 또한 요구된다.

이러한 국가차원의 조치와 함께 대학인의 자기혁신을 위한 내부적 조치도 시급하다. 한국의 대학교육은 국가 차원의 특단적 조치와 함께 대학경영의 전방면에 걸쳐 혁신적 변화가 요구된다는 말이다. 대학의 혁신을 위해서는 우선 대학의 발전 및 변화에 대해 분명한 방향감과 공동체적 목적의식을 제공할 수 있는 재학의 비전을 창

나의 학문 나의 연구

사회기능주의 관점에서 연구 계속할 터

나의 학문이나 연구는 자랑할 것이 못하고, 그저 부끄러움을 따를 뿐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원고 청탁을 받았을 때, 사양하지 못한 이유는 지금까지의 연구생활을 반성하고, 앞으로 6년도 채 안남은 정년때(정년을 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까지 나의 학문인생을 정리하라는 大學史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1963년부터 운송계 그러나 주재법제 법학과에서 행정법과 행정학 강의를 하였던 것은 학생 때 교수로부터 행정법에 관한 발표내용을 호평받은 경험과, 국내 교재외에 구하기 힘든 일본서적이 강의시간을 겨우 메꾸도록 해주었기 때문이다.

70년대는 강력한 중앙집권주의와 행정주도형의 개발년대에서 법학과와 폐교, 관광개발학과와 개발행정학과의 신설 등으로 행정분야 과목이 각광을 받게 되고, 지방행정론도 담당하게 되었다. 70년대 후반 아라캄프스의 마련은 용담캄프스 시절의 연구실사정(전 교수가 한 방을 쓰다가 후에 학과당 한 연구실 사용)을 해결하게 되었으나, 나는 20년 가까운 강단생활에서 한국 학문의 위치와 수준을 담당과목분야도 평가할 능력을 갖지 못했었다.

1979년부터 해외연구 과전교수제가 생겼는데, 1980년 1월 교무과장 재직시, 복수추천토록 된 지원교수가 1인뿐이라, 그대로 올리면 해외연구 지망교수도 없다 하여 대학체면이 손상될까 봐 나를 2순위로 올리게 했다. 일본어 시험후, 출국준비의 통지가 와 나 때문에 못한 교수에게는 지금도 미안하게 생각한다, 무턱대고 東京大學 法學部에 서신을 내어 가게 되었다.

아침 일찍 도시락 등을 챙기고 대학원 강의시간 외에는 문이 닫힐 때까지 거의 매일 연구실에서 한 연구가 韓·日官僚制의 比較研究였다. 전공과목인 행정법과 행정학에 관련되고, 行政主權型 발전을 하려는 한국도 官主權型 발전의 일본처럼 발전하기를 바라던 때라, 국가발전에



다소나마 기여하려는 일념에서였다. 官僚制 比較研究는 法制와 그 운영면의 비교가 필요한데, 法制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고, 운영면에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새 1년이 지나고 결과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귀국 6개월후 國際基督教大學(ICU) 招聘研究員으로 다시 渡日, 연구실 무제한 개방을 최대한 이용, 새벽 1~2시까지 주제의 연구에 전념, 1년만에 400자 원고지 1,650매를 메꾸었다. 1년을 東大 法學部에서 더 연구기로 하고 ICU의 渡邊교수(행정학 전공)와 東京大의 鹽野廣교수(행정법 전공)에게 원고를 보였더니, "이런 다량의 집필은 일본에서도 과거에는 있었지만 근래에는 없다"면서 그중 일부를 달라 하기에 法制面인 「韓國公務員制度の特徴—日本公務員制度と比較して—」를 제출, 定評있는 학술지(『自治研究』 제60권 5, 8, 10월호)에 연재되었다. 이 논문이 東大, 法政大, 名古屋大, 國會議書館 등 일본에서好評이라는 소식이 귀국(1984)후에 전해졌지만, 믿지 않았다가 후에야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귀국후 달라진 것은, 국내 교재의 부족한 점(행정법에 있어서의 형식적 법치주의와 행정학에 있어서의 외국이론의 짜집기식 소개, 가치배제적 형태주의)과 국내학계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보직은 안 맡으려고 했는데, '80년대 후반의 혼란기에 불행하게도 사회과학대학장과 교수처장직을 맡다보니 학문적 공백기간이 되었다.

1990년 재차 渡日하여 판로제

의 운영분야에 관한 연구를 완성 출판하려 함에 있어서, 가능하면 일본교수의 수준을 능가하려 노력했다. 이것이 『韓國と日本の豫算過程』인데, 출판사와 학술재단을 운영하는 河中사장에 의논했더니 학위는문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東京大學 法學部長 西尾勝교수(행정학 전공)에게 검토를 부탁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얻은 결론은 예산은 배분도 중요하지만 價値創造의 활용을 위해서는 주민의 價値觀이 중요하고, 그 가치관 高揚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사회기능주의적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본고장, 미국 New England지방 시민의식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Yale Law School에 가게 되고, 서툰 영어로 행정법상의 등(case study: 실용주의)을 들으며, 설문조사를 하였다. 같은 내용을 일본 京都市民, 濟州市民을 상대로 조사했는데, 이에 관한 집필은 중단되어 있다. 1992년 8월 귀국후, 韓·日地方自治學會에서의 발표, 九州, 神戶, 臺灣, 홍콩, 광둥 대평양연안 6개 島嶼지역 간 협력을 위한 국제학술세미나의 유치·추진, 1993년 3월 일본에서의 제21회地域·自治問題全國研究大會 주제발표, 1년반동안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西尾勝교수 主筆하에 통과된 위 논문으로 成蹊大學 정치학박사 학위취득을 위한 여행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行政大學院長직을 맡다보니 학문적으로는 다시 공백기간이 되고 말았다.

이제 우리나라는 도처에 부패와 폐패 및 대형사고로 모든 시설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자녀까지 포함한 모든 인간이 우리의 양심만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의 의식개혁이며, 이를 위한 실천적 방안이 교육개혁과 더불어 지방자치를 통한 의식개혁이라고 보기 때문에 실질적 社會機能主義의 관점에서 여생을 받쳐 이를 위한 연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조문부 행정학과교수

출해야 한다. 대학이 '왜' 혁신되지 않으면 안되는지에 대한 전체적 공감대로서의 비전없는 목적지 없이 표류하는 항해와 다를바 없다. 또한 대학발전 및 변화에 대한 전체적 청사진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는 대학이 혁신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를 의미한다. 그리고 대학조직체를 하나의 협동적 문화공동체로

재구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는 대학조직체의 어느 한 측면이나 몇몇 하위체제를 대상으로 한 부분적 개선이 아니라 체제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이가 조직구성원들의 의식변화와 전문화는 자기혁신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는 보직교수를 포함해서 대학경영에 관한 제반

실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 행정인력의 질을 높인다는 전략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 대학교육의 자기혁신에 대한 또다른 중요한 가늠자는 대학조직의 민주적, 자율적, 개방적 분위기이다. 또한 대학경영체제가 국제적 감각과 미래지향적 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도 자기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건이다.

POSCO메세지 종강편

어때요?
한번쯤 NG를 내보는 것도!

책상에 앉아 공부만 하는 모범생에 머무른다면 진정한 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방학, 짜여진 강의표도 없고 기한이 정해진 레포트도 없습니다.
NG를 내도 좋고 시행착오를 겪어도 좋습니다.
캠퍼스 밖으로 나가십시오.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떠납시다!

"머리로가 아닌 몸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여름방학동안 땀흘리며 얻은 잊지 못할 산경험들은
젊음의 참가치를, 인생의 참뜻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또 다른 세상의 환복관으로 뛰어나가 많은 이를 만나고,
많이 보고,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이 방학입니다.

국민의 기업, 우리의 기업 -

포항제철

특별기획 21세기를 대비한 우리대학의 과제

○...오는 97년에 교육직장이 전면 개방된다. 각 대학마다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며 전라 화로를 모색하고 있다. 우리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국립대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모호을 받아 왔던 우리대학 역시 세계화와 커류어하고, 이에 뒤처질 때는 존폐의危機가 어떻게 된다. 21세기 우리대학은 어떤 모습일까? 세계속의 대학, 지방화시대를 이끄는 대학,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염은미 씀〉

경쟁력 있는

여론존중한 합리적 대학운영 절실
‘견제와 균형의 원리’ 정착돼야



김 항 원
평의원회의장

5년 후면 21세기를 맞는다. 21세기는 세계화·지방화 시대가 되고 정보화사회가 될 것이다. 정보화사회는 우리사회의 전분야에 걸쳐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높아지는 사회인 동시에 분권화 탈집중화 된 열린 사회를 지향한다. 따라서 세계화의 주역이 되어야 할 대

하이아말로 다원주의에 입각한 민주화, 분권화와 같은 사회원리의 실현장이 되어야한다.

그런데 21세기를 목전에 둔 우리 대학의 위상과 현실은 어떠한가? 대학 전체의 몸집임은 살펴볼때, 이 대학에 몸집과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깊은 성장과 고민을 해 봐야 할 시점인 것 같다. 여기서 제2대추고 평의원에 주어진 과제는 대학발전의 부정적 요인들을 긍정적 동력으로 전환시켜 놓는 일이다. 평의원은 교수들의 대표로 구성된 대외기구로서 전체 교수회의를 대신하는 우리 대학 민주화의 상징적인 기구이다. 따라서 평의원의 제1차적인 목적은 전체 교수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 대학을 민주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대학의 민주화는 교수들이 직선한 총장과 평의원이 대학 발전을 위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제 역할을 다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같이 노력할 때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고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많은 권한과 예산도 단과대학과 학과로 이양하여야 배정되는 자원으로든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일 총장이 권위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대학이었다면, 그 대학은 시대에 역행하는 대학이 될 가능성이 있고 민주화와는 거리가 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권위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진 총장이 대학 운영을 한다면 민주적인 운영은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민주적인 철학이 비관하고 도덕성이 문제였다면, 민주적인 리더십 발휘가 더욱 어려워지며 정책결정이 자의적이고 독단적으로 흐르기 쉽다. 또한 분명한 철학과 원칙이 없으면 방황감을 상실하고 조류하기 쉬우며 명분이 약한 결정들을 하게 될 것이고, 대학 구성원들의 이해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결정이나 정책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이상과 같은 기본인식에서 출발하여 우리 대학의 민주적인 발전을 위한 과제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먼저 대학의 민주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의 최고 의사결정자인 총장의 위치와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들이 총장을 선출할 때는 민주적인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도덕성 면에서 학내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존경을 받으며, 대학 경영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할 것이다. 이런 총장만이 목소리가 큰 사람보다는 말 많은 다수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사임없이 대학 발전에 헌신할 수 있고, 대학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구성원들의 협조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대학의 행정은 교수들이 강의와 연구, 사회봉사를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봉사하고 도와주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 운영이 학과 단위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간섭을 가능한 한 받지 않는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의 민주적인 발전을 위해서 평의회화가 제 위상을 찾고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평의회는 대학발전을 위해서 대학당국에 협조할 것은 적극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면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정책대안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평의원들은 중요 심의사안의 경우 성실히 연구·검토하는 노력이 필요

대학운영 목표·계획 바로서야

상반된 의견 존중...합리적 경영도 필요

오늘날 우리 한국사회는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도도하게 밀려오는 21세기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제 다가올 미래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교육문제를 교육 그 자체로 보는 소극적이지 미시적인 안목에서 벗어나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민족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교육에 전력 투구하고 있

할 것이며 나아가 현대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어떠한 교육관 및 대학관으로 우리의 대학과 대학행정을 바라 보아야 하며 그리고 이를 위한 개혁 방향과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 저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개혁의 기본 철학은



박행신
교수협의회회장

념 하에 대학 경영인은 합리적인 대학발전을 위하여, 교수는 연구와 양질의 교육을 위하여, 그리고 행정직원은 양질의 행정적교육 지원 서비스를 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학의 역할은 새로운 지식 체계를 창조하는데 있습니다. 대학은 새로운 이론 및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학문의 산실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특정 이론 및 아이디어의 배타적 독점을 견제하고 상반된 이론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셋째, 대학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대학이 미래를 이끌어나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함은 지식 체계를 전달하는 것 이상의 노력을 요구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기에 우리 대학이 현실적으로 추구해야 될 점은 우선 도내 우수 집단을 수용할 수 있는 준비

빛재, 대학 운영의 자율성과 경영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대학에 관한 것은 대학인 스스로가 결정하는 '대학의 자율화'는 대학이 본연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해내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대학 운영의 근본입니다. 또한 대학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학 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대학 총장은 대학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경영 총장', '일꾼 총장'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권위주의적, 비합리적 대학 경영은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섯째, 대학이 국제 경쟁력에서 살아 남으려면 대학 운영의 목표와 계획이 바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바꾸어지지 않는 목표를 세워 실천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첫째 대학 수월성을 높여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학 운영을 위한 예산을 어떻게 충분히 확보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학의 예산과 연구비를 위하여 우리의 지구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국력의 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력은 다시 대학과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순환되고 있어 꾸준한 노력 이외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거듭 강조해야 할 점은 앞으로 우리 대학이 국제 경쟁력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은 무엇보다도 우수한 학생을 확보하는 것 일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자랑거리를 개척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랑거리를 홍보하고 그 홍보 방법도 타 대학이 추종할 수 없는 기발한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국립 대학은 정부라는 후견자와 항상 넘쳐나는 교육 수요자 덕분에 온갖 상대적 무풍지대에 있어 아주대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곧 담연하게 겹 교육 수요자의 현저한 감소 현상은 지방 영세 대학 운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한 것에 대비한 대학의 목표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신중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우리는 대학의 위상과 현실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해야한다.

하며, 교수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대학 전체의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쳐 합리적으로 심의·의결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대학의 각 주체들은 세계화를 대비하여 주어진 영역에서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연구와 행정을 통해서 우리대학을 경쟁력 있는 우수한 대학으로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습니다. 실제로 경제의 무국경 시대를 맞이하면서 국제화·세계화를 위한 국가 발전 전략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지식 자본의 양과 질을 높이는 일입니다. 올바른 교육과 교육개혁의 실천만이 있는 오늘날 21세기를 개척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오늘날의 교육과 제는 새로운 거대한 사회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이는 현대의 교육·기술혁명과 문화 변동에 고학·어떠한 역할을

공공성, 공정성, 독립성, 개별성, 공개성의 원리가 반영되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기본적인 것'이어야 하며 교육 개혁의 기본 전제는 '인간 중심 교육'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및 대학 개혁도 이에 근거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학경영자는 자기 이익의 추구나 독단을 버리고 모든 대학인은 스스로 무엇이 대학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찾아서,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육 이

태평양패션

LaVora

라보라

태평양그룹

50
1945 1995

무한책임주의

나를 아는 화운데이션 - “렛세스, 젊은 감각입니다”

강렬했던 기승을 여십시오

자기것이 아닌건 벗어나 합시다

이제 렛세스는 우리의 것입니다

난내게 맞는 것만 선택한다 - 렛세스

Kim Jung-ho

LET'SES

나를 아는 화운데이션 -

렛세스 탄생기념 경품행사

신세대 2,018명의 젊은 감각을 찾습니다.

젊음의 화운데이션 “렛세스”탄생 기념으로 2,018명의 신세대 감각이 있는 여성에게 경품을 드립니다.

응모대상 : 신세대 감각이 있는 여성

응모방법 : 응모엽서 이용
(리본과 매장에 방문하시면 자유로이 응모엽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상내역 :	렛세스 大賞	1명	586달러미디어 P.C
	렛세스 賞實	10명	CD카세트
	렛세스 善賞	20명	문선호출기
	렛세스 美賞	1,987명	렛세스 브라/팬티 1SET
	합	계 2,018명	재공
	(大賞, 賞實, 善賞 당첨자도 렛세스 브라/팬티 1SET추가)		

응모기간 : 1995. 6. 10 ~ 7. 10 (31일간)
 문 의 처 : 서울 546-5215 ~ 6, 부산 462-5812,
 대구 756-0172, 광주 227-4532, 대전 634-1164

당첨지발표 : 7월 25일 스포츠서울 <단, 렛세스 美賞은 발표하지 않고 개별 통보합니다.>

렛세스 매장안내 : 라보라 매장을 찾으세요

주요백화점

- 서울 : 삼육회관, 그랜드(백), 예경(백), 한신코아(백)성제점, 롯데(백)반포점, 그레이스(백), 현대(백)반포점, 뉴코아 구강, 뉴코아 신관, 진로(백)서초점, 신세계(백)이마트, 롯데쇼핑몰, 롯데월드, 롯데(백)양동로점, 롯데(백)영등포점, ■부산 : 삼육회관, 부산(백), 유나이, 미하임(백)
- 대전 : 한신코아(백), 동양(백), 대진(백), ■대구 : 대우시, 동아쇼핑, 대구(백), ■광주 : 송원백화점, ■경기 : 신세계(백)의정부점, 뉴코아(백)수원점, 안산 세반쇼핑, 뉴코아(백)왕송점, 진로(백)의정부점, ■충북 : 홍익백화점, ■경북 : 강주시민(백), 포항대우점, 호랑들저장부, ■경남 : 삼성백화점
- 전북 : 진흥(백), 전주코아(백), 이리중앙(백), ■전남 : 뉴코아(백)순천점

주요전문점

- 서울 : 최정지비코너 778-6175, 동종지비코너 732-2963, 이화리보라 392-5381, ■부산 : 온천리보라 557-6442, 광복리보라 245-0892, 현미치 245-5187, 롯데캐피탈 255-0958, 경성리보라 809-9550, 서면리보라 809-9212, ■대전 : 신사리보라 252-3450, 삼부리보라 525-2247
- 대구 : 장미리보라 423-5152, 동성로리보라 425-3507, 이화리보라 254-3373, ■광주 : 송정리보라 547-6629, 신봉리보라 766-5555, ■경기 : 이천 현대점 30-4147, ■강원 : 김릉리보라 645-1892, 춘천리보라 242-4883, ■충북 : 청주리보라 52-7353
- 충주 : 중앙리보라 845-4895, ■울산 : 사신리보라 64-3297, 안암리보라 545-6171, 흥성리보라 34-3340, 공군학지 551-3593, ■경북 : 구미리보라 52-1610, 김천리보라 32-4854, 안동리보라 859-3608, 영주리보라 32-4266, ■경남 : 마산리보라 22-2213, 고령리보라 635-5404
- 창원 : 창원리보라 81-2236, 울산리보라 43-5474, 안양리보라 62-5161, 전주리보라 745-1355, 충무루세리보라 43-2097, ■전북 : 이리중앙리보라 52-9063, 이리대형방 842-6556, 전주중앙리보라 88-3407, 정읍중앙리보라 535-2133, ■전남 : 여수리보라 62-6208, ■제주 : 서귀포리보라 62-4150
- 서해리보라 42-4424

“렛세스” 는 우리나라 최초로 신세대 2,018명의 체험을 실제 측정 조사하여, 내 몸에 꼭맞춘 새로운 브래지어/거들입니다.

시설부문 가상 마스터플랜

효율적 공간 활용을 위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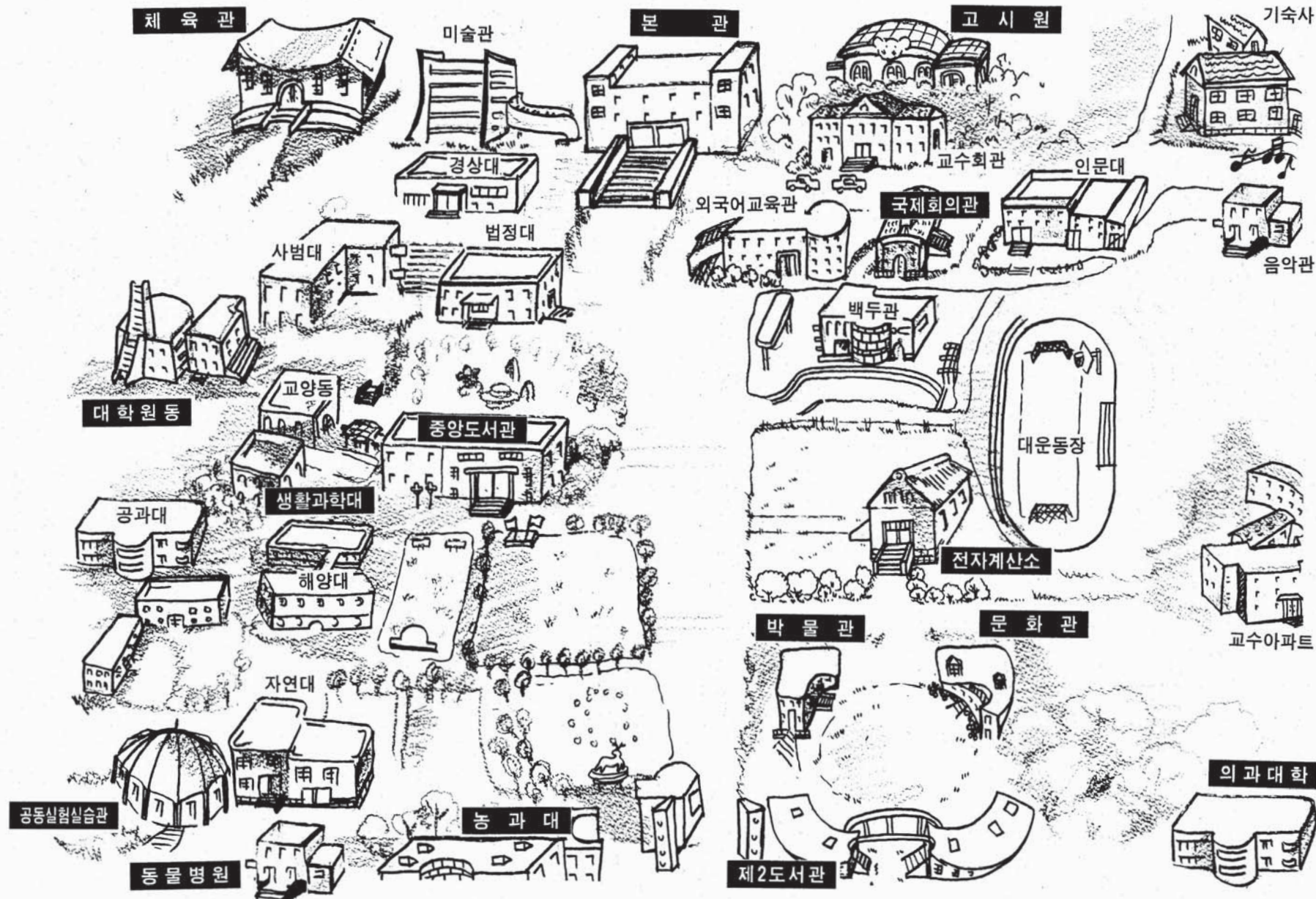
○...지난해 6월부터 추진되어 올해 2월에 마무리 될 예정이던 '우리대학 시설부문 발전계획'이 아직까지 심의단계에 놓여 있다. 학내 구성원들마다 서로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시설부문 발전계획을 요구하고 있어 용역팀과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중지를 모으면서 뾰족한 계획을 확정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본사에서는 특정 집단에게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현대적에서 가장 효율적·합리적이라 생각되는 마스터플랜을 제시해 본다. 물론, 이 마스터플랜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임을 강조해 둔다. (여운이 씀)

개발제한지구(그린벨트)로 묶여 있었던 우리대학 입구에서부터 소운동장 사이 7만7천2백5평이 용도변경됨으로써 작년 6월부터 추진해오던 '시설부문 발전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과거 좁은 공간 활용에서, 새로운 공간수요로 말미암아 무질서한 공간점유는 동선체계의 난맥상을 유발할 뿐이다. 이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캠퍼스공간을 색채화하는 광역구상이 필요하며, 늘어나는 동선을 효율화시킬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효율적인 공간활용이란 학우들이 자주 이용하는 도서관, 학생회관, 교양학부를 대학 캠퍼스 중앙에 두고 그 다음 교양학부를 지원해 주는 자연대, 인문대가 위치하고 그 주변에는 공과대, 사범대, 농과대, 해양대, 경상대 등이 위치해야 적당한 배치라고 본다.

그러나 과연 우리대학은 이렇게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효율적인 공간활용의 원칙을 제대로 수용해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가?

도서관은 일명 백발백중이라는 높은 고지를 넘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쉽게 찾아가지 못한다. 이에 몇몇 학우들은 정말로 자료를 찾거나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만 찾아오기 때문에 오히려 어수선하지 않아 더 다행이라는 말도 한다. 그러나 모든 학생들이 이용해야 할 도서관이 경상대나 인문대 학우들은 가까이 위치해 자주 이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과대나 자연대에 있는 학우들은 섬뜩히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위험(?)있는 장소이다. 우리대학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대학내 건물배열에 대해 한번



중앙도서관과 본관건물 위치 바꿔야

야외음악당·본관앞 어떤 건물도 들어서선 안돼

이라도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던 학우는 없었을 것이다. 그만큼 이제까지 우리대학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건물을 건립했다기보다는 빈 공간을 찾아 끼워넣는 식이었다.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요구는 끝이 없다.

그러면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위해서 현재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그 재배치 문제에 관해 생각해 보고 현실가능한 가상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시해 본다. 이는 현재 심의중인 '우리대학 시설부문 발전계획'을 어느 정도 감안하면서 제시한 것임을 밝혀둔다.

△도서관—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도서관이 위치가 너무 높고 외떨어져 있다. 학우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한시간 정도의 공간시간에 들리는 무리가 따른다. 또한 열람실의 부족으로 많은 학우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현재 본관건물과 도서관의 위치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학우들이 이용이 잦은 학적과 등의 경우는 현재 본관건물에 놓아둔채 학우들의 이용이 비교적 적은 부서들은 도서관의 위치로 옮겨야 한다는 말이다.

한편 기존의 협소한 도서관으로

인해 제2도서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학내 곳곳에서 일고 있다. 제2도서관의 위치는 지금의 소운동장이 위치한 곳이 적당할 듯 하다. 반면 일부에서는 야외음악당에 제2도서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백백히 늘어서 있는 딱딱한 존재를 잊혀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의견이 나고 있다. 학우들이 만들어 준다. 캠퍼스의 녹지조성에 있어서 기존의 녹음을 보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 본다. 특히 우리대학을 처음 찾은 외부인에게는 본관과 대학원 건물앞에 펼쳐진 잔디밭들은 부러움의 대상

이다. 이에 야외음악당은 그대로 보존해 두는 편이 나을 것이다.

△체육관—지금의 체육관은 건물도 오래되고 체육관내에 일반 학우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도서관 동쪽, 즉 지금 한창 공사 중인 행운인 예술관 옆으로 대대적인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타운을 건설해야 한다. 수영장이나 테니스코트 등을 만들어 학우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겠다.

△문화관—아직 심의단계에 있는 '시설부문 발전계획'에 따르면 지금의 소운동장에 공연이나 학내의 다채로운 문화활동을 위해

'문화관'을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사실 우리대학내에 문화공간이라야 법정대 중강당이나 야외음악당이 고적이다. 그래서 한번 연극공연을 준비할 때 연습장소나 공연 장소로 관계 학우들의 불만이 대단한데 이런 불편의 해소가 절실하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문화 발전에 우리대학이 그 중심점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런 이유에서라도 우리대학내에 '문화관'을 설치하는 것은 시급하다고 본다.

△박물관—본관 3층에 위치한 현 박물관은 장소의 부족과 학교 당국의 지원미비로 인해 거의 학우들로부터 잊혀진 공간이다. 도내 유일의 종합대학에서 제주도와 관

련된 향토문화를 선보일 수 있는 박물관 하나 제대로 비치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의 관심부족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박물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어 문화관옆에 박물관을 만들 계획이다.

△국제회의관—21세기 국제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대학내에 국제적인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그 위치는 현재 외국어교육관 옆으로 만들어야 그 목적이나 필요에도 적절한 배치라고 보여진다.

△생활과학대—'우리대학 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1997년에 생활과학대 신설을 명시해 두고 있다. 이에 '시설부문 발전계획'에서는 생활과학대의 위치를 사범대 동남쪽에 놓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현재 농과대가 위치한 자리에 생활과학대를 놓고 농과대는 농정쪽으로 가는데 좋을 듯 하다.

△전자실—현재 본관에 위치한 전자계산소를 더 확장시켜 별도로 건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렇게 되면 그 위치는 현재의 체육관건물을 이용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공동실험실습관—보통 실험을 위주로 강의하고 있는 단과대를 보면 자연대, 공과대 등이다. 우리대학은 실험실습기자재가 열악한데 공동실험실습실을 만들어 기자재를 보완하는 문제가 시급하다. 공동실험실습관을 건립한다면 공과대와 자연대건물을 가까이 배치해야 한다.

△대학원동—앞으로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경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대학 시설부문 발전계획'에 따르면 대학원동은 생활과학대 옆에 놓이게 된다.

우리대학이 새로 만들어야 할 건물은 많고 이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큰 것이 사실이다. 하나 대학 자율화 정책에 따라 우리대학이 다가오는 21세기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대적이고 효율적인 건물의 재배치가 시급하다. 그 당시의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그때 그때 설치한다 해도 어느정도 미래를 대비하면서 배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의 도서관같은 실수를 저지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캠퍼스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는 학내 구성원 개인의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 될 것이며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고 우리대학의 미래를 생각하는 자세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설부문 발전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대학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본다.

(김정순기자)

개교43주년, 창간4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행정대학원 제5기 고급관리자과정 원우회

강승훈 회장 외 65명 원생일동

우리대학 기네스북

○...여러분은 우리 대학을 얼마나 아십니까? 최고, 최초, 최다, 최대 등등의 진기록들—궁금하시죠? 본사에서는 우리대학 역사에 기록될만한 몇가지 사항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객관적으로 입증될만한 자료에 한해 선정하다보니 여러가지 중요한 사항이 많이 누락됐습니다. 누락사항이나 혹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추후 수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엮음이 씀)

▲교수중 최고 연장자는?

김홍식(인문대 국문)교수님은 30년 4월29일생(만64세)으로 올 8월 정년 퇴임을 앞두고 계시다. 요즘 온 정성과 노력을 다하여 마지막학기 강의에 임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선생님! 강단을 떠나시더라도 저희들을..."



▲최연소 교수는?

김민찬(공과대 화공)교수님은 65년 11월 14일생(만 29세)으로 지난 93년 3월 우리학교에 부임(당시 만27세). 그런데 이 신세대(?) 교수님께서 최근 여학생들로부터 인기가 급전직화했다는데, 그이유는 김교수님께서 얼마전 장가를 들었기 때문이라나?



▲최근 연구논문을 가장 많이 발표한 교수는? (89년 이후)

이민규(공과대 화공)교수는 89년부터 94년까지 6년간 무려 39편의 논문을 발표, 평균 2개월에 1편이상의 논문 집필실적을 보였다. 반면 1년에 한편도 안쓰는 교수도 적지 않는데 "우째 이런 일이..."—아마 그래서 '교수 연구 비차등지급'이라는 말이 나오나 보죠?

▲우리대학에서 배출한 박사 제1호는?

양승주(제주전대 축산학과 교수) 동문은 지난 81년 우리대학

대학원에 박사과정이 신설된 이후 처음으로 86년 2월 농학박사학위



를 취득해 지금은 제주 전문대에 서 인재양성에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같은 과 김동철 동문이 함께 학위를 받았으나 학번이 늦어 '1호 박사' 자리를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제일 키가 큰 교수는?

Dennis Ferman(인문대 영문)교수는 신장이 192cm로 오빠부대를 물고다니는 농구선수를 능가한다고. 음식은 채식만을 고집한다니, '숫다리'들께선 지금부터 채식주의자가 되어 보시길.



▲제일 큰 강의실은?

교양동 4130강의실의 면적은 2천1백60㎡이나 되고 한번에 2백20명 수용할 수 있다고 4130 강의실에서 강의 듣는 학우 여러분! 강

의하시든 교수님의 목청을 보호해드리기 위해서라도 수업분위기 조성에 힘쓰시라.

▲제일 작은 강의실은?

사범대 B동 3115, 3116, 3318, 3318-1, 3319, 3320호 강의실 이 여섯 쌍둥이 강의실의 면적은 40.9㎡밖에 안돼 20여명만 들어가면 딱 차버린다는 것. 이곳엔 종종 학우들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가 내려졌다가 어쨌나?



▲박물관 유물중 제일 오래된 것은?

고산리 출토 유물인 용기문토기(신석기시대 전기, BC 4천~5천년). 지금으로부터 약 7천년전의 이 유물이 우리대학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요? 이 밖에도 우리 박물관에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진귀한 유물과 명품들이 많이 있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번 박물관을 방문해 보심이 어떨는지.....



▲우리대학 출신중 가장 먼저 행정고시, 사법고시, 공인회계사에 합격한 동문?

사법고시는 현재 故人이 된 김태운씨이고, 행정고시는 김재규(85년 행정학과졸) 동문, 공인회계사는 이정옥(86년 회계학과졸) 동문이 우리대학 1호로 고시에 합격 동문들이라오. 우리 후배들도 열심히 노력하여 1백호, 1천호 고시합격자가 하루빨리 나올 수 있도록 정진합시다.

▲우리대학 출신중 최초로 문단에 등단한 동문은?

양중재(57년 국문졸, 국교 명예교수) 동문이 59년 '사상계' 7월호에 '그늘'이라는 시가 추천돼 등단한 것이 처음. 한편, 신춘문에

를 통해 등단한 동문으로는 김영화(65년 국문졸, 국문 교수)동문이 67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동인소설의 구조'라는 평론으로 등단한 게 최초. 국문 학과에서는 김지연이라는 동명이인의 두 동문이 94·9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연속으로 당선되는 경사가 있었는데, 이 모두 훌륭한 선배들로부터 갖고 닦은 전통에 기인한 것인 듯.

▲우리대학에 발전기금을 맨 처음 냈던 사람? (90년 이후)

91년도에 남상수(남영나일론 회장)씨가 대학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기탁한 것이 시초.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발전기금조성에 발맞고 나서시는 게...



▲우리대학입시에서 최고의 경쟁률을 보였던 학과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합격을 축하합니다." 91학년도 입시에서 경상대 무역학과가 6.6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우리대학 졸업한 후 또다시 우리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있다면?

학우들이여 눈이 있다면 이 사람을 보고 배우라. 89년도에 우리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한 고현의(미술 3) 학우는 어린시절부터 가졌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93년도에 또 입시지옥을 거쳐 우리대학 미술학과에 입학했다.

▲학생수가 제일 많은 학과는? (95년 4월현재)

행정학과가 2백14명 (학과정원은 학년당 50명)으로 최대 식구.

百人百色이라고 했거늘, 그 많은 개성, 그 많은 가능성으로 학교의 명예를 빛내는 데 일조하길.



▲학생수가 제일 적은 과는?

46명(학과정원 학년당 15명)의 상업교육과 "우리보다 가족적인 분위기가 있으면 나와보라구 그래!" 비록 소수지만 '일당백'의 정신으로 회소가치를 인정받겠다고. (김이진 기자)

□ 43년 우리발자취 교내 출판물 전시회를 보고

향토자료 중요성 실감

구비못한 출판물 하루빨리 입수해야

지난 5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중앙도서관 3층 정기간행물실에서는 우리학교 43년 세월을 한 눈에 조망해볼 수 있는 교내발간 출판물 전시회가 있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행정업무 담당하는 본부 소속기관부터 학생회 조직에 이르기까지 모두 41개 기관에서 발행한 3백30종류의 1천8백권의 책자와 빛바랜 졸업앨범까지 공개됐다.

43년동안 간행된 각종 기록을 대한 느낌은 마치 한 편의 '그때를 아십니까'류의 낡은 슬라이드 필름을 한 칸 한 칸 찢어 영상막에 투사시켜 바라본 것과 같았다.

세월의 무게를 띠고 가지런히 전시된 여러 종류의 책자들은 그 시대상황을 고스란히 목소리로 들려주었다. 유신체제의 숨막혔던 70년대와 질풍노도의 80년대, 지난 세대에 비해 뭐라고 표현하기 애매한 90년대 시대가 처한 상황들을 말이다.

개교 14주년을 맞아 열렸던 용담동 캠퍼스시절의 두번째 학교축제(명칭은 용연제)팸플렛은 B5용지크기의 남창에 총학생회장의 '초대의 글'과 행사계획 등이 인쇄돼 있었다. 아직 첫번째 축제팸플렛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서 2회 팸플렛의 희귀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행여나 잃어버릴까, 훼손될까 염려스러워 코팅이 돼있는 모습은 현재의 우리를 읽을 수 있고 반추해 보는데 과거의 기록은 얼마나 소중한 지 조금이나마 시사해준다.

3회때부터는 가로 15cm, 세로 21cm 크기에 8장으로 부피가 늘어났고 22회(86년)부터는 A4 용지보다 조금 작은 크기에 겉표지가 두꺼워지고, 색깔이 들어갔으며 12장으로 두꺼워졌다. 거기서 다시 9년이 지난 올해 팸플렛을 보면 광고가 부쩍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외형의 변화는 내용의 변화를 반영하듯이 팸플렛에 기재된 행사만을 통해서도 시대에 따른 대학문화의 변천을 감지할 수 있다. 자연대학생회에서 발행한 '여과지'도 눈길을 끌었다.

89년 4월6일이 창간날짜로 기록돼 있는 이 소식지는 타블로이드관 크기의 산성지로 누렇게 바래 있었다. 5호를 발간할때쯤에 출판사정이 여의치 않았는지 손으로 쓴 필체가 복사본으로 남아있었다. 5년사이에 장족의 발전을 한 것 같다. 94년에 발간된 13호는 22장으로 두툼해졌다.

이 방대한 자료들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 모아졌을까. 94년 7월, 한창영관장이 취임하



◇지난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중앙도서관 3층에서 열렸던 교내출판물 기획전시회에서는 43년간 우리대학 41개 기관·단체에서 발간된 1천 8백권의 인쇄물들이 공개됐다.

면서 향토자료를 보강해보자는 논의가 오갔다. 그래서 양상숙 사서 주사가 94년 7월11일부터 8월20일까지 14일간 도내순례를 하면서 제주를 얘기해주는 많은 자료와 사람들을 만났다. 그 이후 제주대학교를 거쳐간 수많은 졸업생들에게 편지를 보내 제주대학교에 관련된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94년 12월13일에 제주자료 총서목록 제1권인 '제주대학교'편 발간을 계획했고, 95년 2월 23일에 향토자료실 발전계획이 확정됐다.

올해 2월부터 5월까지의 동아리방과 학생회사무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혹은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행사문건과 회지 등을 수집했다고 양상숙 사서주사는 전한다.

무엇이든 지 일을 해나가는 데는 첫 걸음을 떼기가 힘들다고 한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이번 전시회는 처음 시도됐는데 무거운 짐을 두면서, 앞으로 어떤 점들이 고쳐지고 보강돼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싶다.

첫째는 이번 전시회가 한계면에 방대한 양을 도서관 혼자서 소화해내려고 하다보니, 빼먹은 기록들 역시 많았다. 그러나 이 부분은 처음 실시된 행사였다는 점에서 이해되고도 남는다. 그래서 앞으로 이 행사를 계속 해 나가야 한다는 행사를 주관해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총학생회는 총학생회가 그동안 걸은 길을 체계적

으로 정리해 제시하고, 연구소는 연구소대로, 동아리는 동아리대로,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각각의 기구에 그들 자신들의 과거를 정리할 수 있게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내실있는 정발 역사를 채가하는 기록의 장(場)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조직의 질적인 발전과 대적점에 위치해 있다.

자료수집과정에서 가장 힘이 들었던 점은 다름아닌 동아리동아리, 학생회동 학생회 등이 소속 기관의 자료들을 모아놓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례로 70여개 동아리 가운데 청간호부터 현재까지 자신들의 기록을 꾸준히 모아오는 데는 아마추어 무선연구회 단 1개 동아리뿐이라고 한다.

두번째는 역사를 정리하고 기록해 나가는 이 작업을 전문적이고 수준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하려면 학교의 재정지원과 더불어 전문인력의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공동체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이 시점에 향토자료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는 것은 진부한 일일 것이다. 제주도에 대한 연구가 제주도 밖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일례로, 하와이 대학교에서 매년 5백만원을 들여 제주도자료를 수집해 간다는 점을 고려해볼때, 지역연구의 등뼈역할을 할 제주대학교의 향토자료실의 자료확보는 탄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신옥 기자)



만라일보원경운동 '맑고 푸른 제주를 가꿈시다.'

아름다운 제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신문—한라일보

도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한라일보는 아름다운 섬,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내 최초로 환경대상을 제정, 환경의 중요성과 인간과의 조화를 강조하며 환경보전 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대동제 위상 찾아야

운영 미숙·학술행사 부족 보완... 짜임새 있는 기획을

아라축전 이모저모

“미래 노동자의 삶과 사랑, 함께 하는 이 길은 아름답습니다.” 지난 2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개교 43주년을 기념해 열렸던 제31회 아라대동제가 27일 폐막식도 치러진 채 끝났다. 이번의 대동제는 준비과정에서 학우들에게 대동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다수 학우들이 제안한 프로그램을 대동제행사로 마련하는 등 참신한 행사가 기획되기도 했으나 제대로 실행되지 못함으로써 안타까움을 갖게 했다.

어느덧 대동제의 꽃은 전야제 행사다. 탑동에서 민주광장까지의 성화봉송으로 축제는 24일 일찌감치부터 시작됐지만, 학우들은 정작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 봉송이나 길트기 공연보다는 캠퍼스를 가득 메우는 먹거리에 더욱 민감한 모습이었다. 과학우들끼리, 혹은 같은 동아리 몇명의 학우들이 모여서 김밥이나 튀포같은 간식을 팔기도 하고 소문동장에 가득한 주점에서는 끊임없이 술이 비워지는 대동제 전야제의 모습은 예년과 다름이 없었다. 어둠이 내리면서 학우들과 시내에서 구경삼아 올라온 시민들은 전야제의 본행사(?)가 치러지는 야외음악당으로

백두관 3층 로비에서 발표회를 열기도 했다. 26일 열린대학. 길거리 농구대회의 예결선이 빠듯한 일정속에 치러졌다. 설문조사 결과 많은 학우들이 원했던 항목을 프로그램으로 만든 것이다. 학우들의 참여도는 높은 편이었다. 영문학과에서 주최한 'English Performance Contest' 역시 올해 처음 시도된 것임에도 비교적 많은 학우들이 참여하는 모습이었다. “학생들의 실력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는 고정환(영어영문학과) 교수는 “이런 학술적인 행사가 대동제 안에서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탑동 해변공연장에서 벌어진 ‘아라가요제’도 관심을 끌었던 가운데 치러졌다.

27일 폐막을 알리는 특별한 행사도 없이 당초에 예정돼 있었으나 취소됐다. 95년 대동제가 끝났다.

“한번도 대동의 기억을 가져보지 못한 그에게...”라는 메시지를 걸고 95년 대동제가 시작됐으나 올해라고 해서 아라인들이 대동의 기억을 가질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이번 대동제는 준비가 미흡했던 탓인지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첫째, 대동제 기간내내 나타났던 전반적인 운영상의 미숙함이다. 전야제 다음날 비가 왔다고 해서 예정됐던 학원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바람에 관리인들이 쓰레기를 치우느라 애를 먹어야 했다. 게다가 25일 예정됐던 행사도 우천으로 모두 취소됐고, 26일에도 야외영화제나 대동제사진 콘테스트가 취소됐으며, 27일에는 폐회식마저 취소돼 대동제는 용두사미의 꼴로 끝이 났다. 대동제지킴이를 제대로 운영했다면 이런 실수들을 얼마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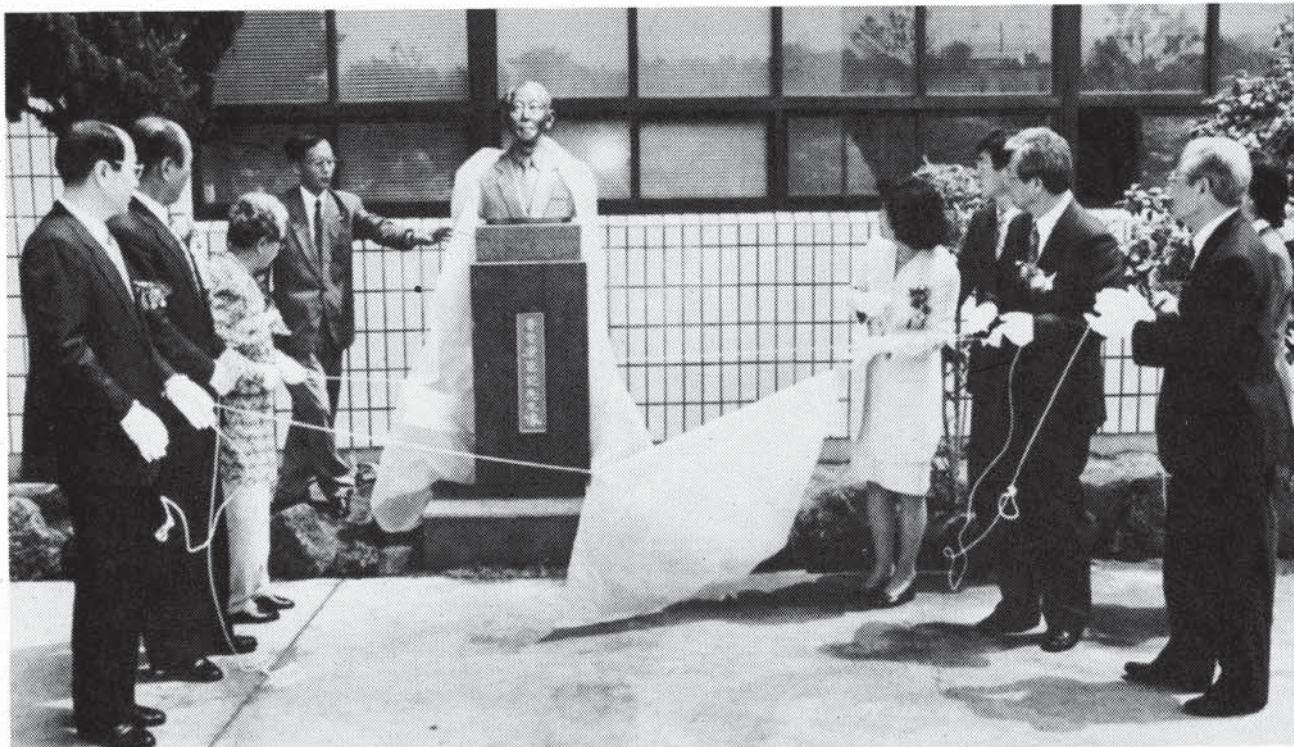
둘째, 학술행사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매년 지적되는 데도 불구하고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다. 대학의 대동제가 단순히 먹고 마시고 즐기는 축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학술행사가 있다는 것도 그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과축제를 대동제 기간에 개최하도록 해서 대학인들의 지성의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과학교육과 ‘망원경과 현미경’은 매년 대동제기간에 열려 대동제 행사중 드문 학술행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각 과마다 나름대로 전통에 따라 학술행사나 과축제 기획되고 있기 때문에 시시조절이 쉽지 않다. 더욱이 연초에 일년행사가 기획되기 때문

에 더욱 시기조정이 어렵다”고 이번 대동제를 준비했던 김정충학생회문화기획국장은 밝힌다. 그런 아쉬움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시도했던 영문학과 주최 ‘English Performance Contest’는 법정대 중강당을 가득 메운 학우들의 박수갈채속에 치러져 단순히 즐기만 하는 대동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또한 도서관 3층에는 개교후 우리대학에서 발견했던 인쇄물들이 대동제 기간 동안 전시됨으로써 대동제행사의 또다른 형태에 대한 모색의 기회가 되기도 했다.

셋째, 학우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동의 장을 마련하는 일도 대동제를 준비하면서 풀어야 하는 가장 곤란한 숙제중의 한가지다. 올해의 경우 사전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다수의 학우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했지만 준비가 미흡해 진행되지 못하는 등 아쉬움을 남겼다. 전야제의 행사가 끝나고 나면 4학년들은 도서관 열람실에서 나머지 대동제 기간을 보내고, 3학년들은 여행을 떠나고, 남은 1, 2학년들은 처음보는 재미로 대동제행사에 참여하거나 주점 혹은 분식집을 운영해 짭짤한 수익을 챙기는 데 열심이다. 대동제에 대동의 장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게 되면 으레 학우들의 의식의 부재가 지적된다. 그러나 학우들의 대동제에 대한 참여도가 낮은 것도 사실이지만 애초에 대동제가 학우들을 끌어들이는 만큼 대실이 없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대동제가 대동의 의미를 가지려면 우선 학우들의 참여가 선행돼야 하지만 학우들을 어떻게 참여하게 할 것인가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깊이 생각돼야 할 문제다. 또한 특별한 행사도 준비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동제기간을 길게만 잡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서울대의 경우 대동제기간을 2일로 줄이고 그 하루는 토요일로 일정을 잡았다고 한다. 총학생회의 내에 대동제를 준비할 인원이 모자란다면 대동제준비를 위한 학우들을 따로 모집하는 방안이라도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대동제는 아라인이 하나가 되는 장이다. 어떤 일이든 기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어렵지 않은 것이 없다. 8천여아라인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 학생운동의 양상이 변하고, 학우들은 더욱 개인주의화 돼 가고 있다. 대학에 대한 사회의 요구와 사회에 있어 대학의 역할도 변하고 있다. 이렇게 대학주위를 둘러싼 많은 것들이 급격하게 변해가는 이 시점에서 대동제행사의 총체인 대동제의 새로운 대안 위상찾기가 모색돼야 한다.

(진명희 기자)



〈사진:김정일·박정인기자〉



◇우유마시기 대회 - 이런때 실컷마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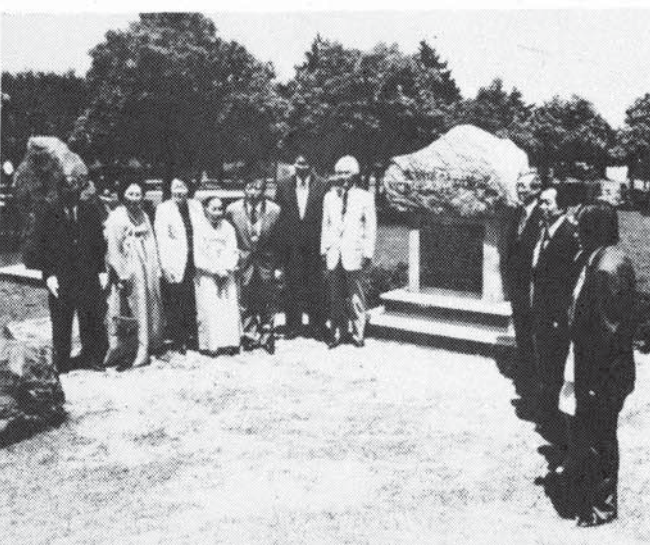


◇아라대동풍이 전야제행사 - 밤에만 빛나는 행사 내일부터 방학이다(?)

◇기당 갈구법 선생 홍상제막식 - 선생은 갔지만 정신은 영원하리



◇English performance Contest - 나는 민족 주의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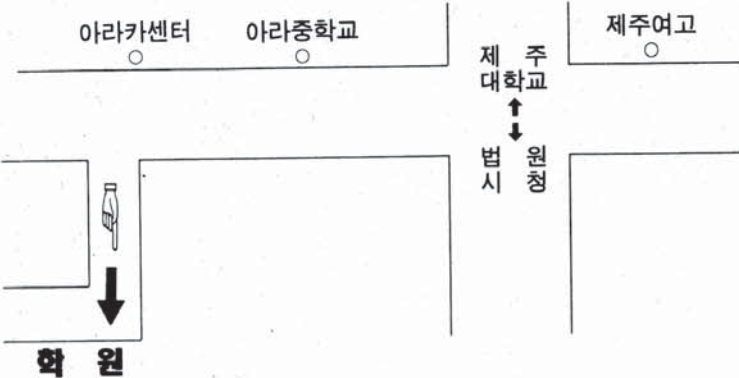


◇김명선선생 공덕비제막식 - 선생이여! 앞으로도 계속 보살펴주시길

“자동차운전”

한라자동차학원

- 아라동에 위치, 편리한 교통
- 빠르고 친절한 운전교습
- 최신 컴퓨터시설, 최고의 합격율
- 필기시험강의
- 학원 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동 (법원위 제주여고 동쪽)
TEL.55-9900, 56-7755

개강!

6월 1일(木)

강사모집

인원: 10명

제출서류: 이력서 1통

7월 9일 시행 W/P 2급·3급 필기대비반

사무정보실기·정보처리기사 실기대비반

정보통신운용필기·실기대비반

정보처리기사·기능사 필기대비반

강의실	1강의실	2강의실	3강의실	5강의실	6강의실	7강의실	8강의실	9강의실
강의시간	1강의실	2강의실	3강의실	5강의실	6강의실	7강의실	8강의실	9강의실
7:00	DOS	W/P	W/P	W/P	사무정보	LOTUS	기사실기	C-I
8:20	DOS	W/P	2급필기	3급필기	실기			
9:30	DOS	W/P	W/P	DBASE	W/P	WINDOW		
10:30	DOS	주부교실	2급필기		3급필기			
11:40								
4:30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어린이			
5:30	B-I	B-II	울울	W/P	B-III			
5:50	DOS	W/P	W/P	기능사	W/P	C-II	DBASE	
6:50			2급필기	필기	3급필기			
7:00	DOS	W/P	W/P	정보통신	필기	EDPS	W/P	
8:00	DOS	2급필기	2급필기	필기	실기	3급필기		
8:10	DOS	W/P	W/P	기사필기	LOTUS	FOR	C-I	
9:10			2급필기			TRAN		

월드컴퓨터학원
문의전화(FAX) 52-3321, 56-3321
세무서 및 사거리 아산빌딩 3층

'95년도 예비군 교육훈련 일정 공고

- 교육기간: 1995.6.29~7.4(4일) 7/1~7/2(2일)
- 교육장소: 해병대4대(제주시 연동 소재)
- 교육대상
가. 사별(방위복무자 포함) 및 일반학생 전역자: 전역 1~5년차 해당자 (80년부터 90년까지)
나. 단거사 이상 장교 전역자: 전역 1~7년차 해당자 (80년부터 90년까지)
- 교육비대상
가. 사별(방위복무자 포함) 및 일반학생 전역자
· 당해년도(80년)전역자
· 전역 1~5년차(80년)이전 해당자
나. 단거사 이상 장교전역자
· 당해년도(80년)전역자
· 전역 1~5년차(80년)이전 해당자
- 교육장
가. 교육장소: 예비군교육(하급)교육 담당부서에 한함.
(타대학은 교육 불가)
나. 교육일: 07:45까지 시간 엄수, 교육장에 집결할 것.
(지각자는 보충교육 시간 가산함)
다. 중장은 개인별 지참할 것.
라. 복장
· 일소: 예비군복 착용할 것(모자,훈령명찰,대동 규정된 복장을 착용)
· 위소: 사복 착용(일소시 사복을 지참할 것)
마. 신분증(주민등록증,학생증,전면면허증 등)을 필히 지참하여 교육장 집결시 제출하고 참석증을 교부 받아야 함.
바. 교육참가시 보충교육 시간이 가산되므로 정당한 사유(교육출장,질병 등)로 교육훈련을 연기하고자 하는 대원은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95.6.17일까지 연기원을 제출할 것.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비군연대(구내 228822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연대

■ 본교 축제 30년사

60~70년대 규모 작았지만... 참여도는 높아

대학축제 최근들어 기성문화 재생산 창구로 전략

1965년 개교 13주년 기념으로 '용연제'가 시작된 이래 '아라축전'으로 이어진 우리대학 축제가 올해로 31회째를 맞았다.

개교는 43주년인데 축제는 31회라 맞지 않은 감이 있는데 이는 '용연제' '아라축전'이라고 축제를 이름이 붙여진 것이 31회째라는 예기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름이 붙여지기 이전에도 규모는 작았지만, 축제행사는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30여년이 지난 지금과는 모습이나 분위기가 많이 달랐음은 물론이다.

서경림(법학과 66년 졸)교수는 "서울(당시는 동아리를 이렇게 불렀음)수는 말할것도 없고 학생수로 보나 지금과는 비교도 안되게 행사규모나 수가 작았지만 그 당시 대학생들은 자립의식이 강하고 대학생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는 의지가 강해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고 회고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서교수가 입학했을 때 1학년 전원이 서울에 가입해 활동을 한것으로 봐도 짐작할 수 있다.

60년, 70년대까지도 축제기간은 체육대회와 연이어 대개 5일동안 치러졌다. 개교기념식이 끝나면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가 있게 되고 그 후에 교수, 학생, 시민들까지 함께하는 행사가 진행됐다.

제1회 용연제의 축제 프로그램에는 △총학생회 주최 학생·학교당국·총동창회간의 간담회 △제주도 문제연구회 주최 본도개발 심포지엄 △노래잔치 △음악감상회 등이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요즘과 별다른 점이 없는듯이 보이지만 규모나 참여도 면에서는 지금의 축제와는 다르다. 규모는 작았지만 참여도는 훨씬 높았던 것이다.

67년도에는 개교15주년을 맞아 행사도 꽤 다채롭게 열렸다. 5월의 여왕 선별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여학생이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져 여왕으로 뽑힌 여학생은 남학생에게는 질시의 대상으로 여학생에게는 질시의 대상으로 존재했다고 문물들은 전한다. 또한 이해에는 우리대학에선 처음으로 축제의 꽃이라는 전야제가 치러지기도 했다. 전야제는 지금과 같이 삼삼월에서 성화를 제하고 시내를 달려 현재 유동암 앞에 있던 암자에 안치되었다고 한다. 그 암자는 뒤에 관광지 자연환경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철거됐지만 성화가 점화되 있던 그 기간에는 바다전경과 어울려 낭만적인 분위기를 고조시켰을 듯 하다.

80년 현재의 아라동으로 이주해



◇연극 '안네 프랑크의 일기' (63년)



◇개교기념식전 행사-태권도 시범 (79년)



◇우물췌던 80년대 초에는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탈춤 공연이 성황을 이뤘다. (81년)

오기 전까지 용연에 캠퍼스가 있을 때에는 시민·중·고등학생들의 참여율도 높았다. 또한 학교시설이 강당을 제외하고는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었다. 그래서 음악감상회는 시내 다방에서, 세미나는 예식장을 빌려서 치러졌다. 이러한 대학축제로서의 행사와 더불어 같은 기간에 중·고등학생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청소년들의 문제점을 들어 보고, 제주대학에 대한 이미지도 제고시키는 기회로 삼았다. 그리고 백일장이나 축구대회를 대학 내에서 개최함으로써 우리대학을 알리는 기회로 삼기도 했다. 물론 지금도 백일장이나 미술실기대회 등과 같은 행사는 명맥을 유지해 계속 실시하고는 있으나 그 당시에는 대학성이 드문 시기였기 때문에 행사주최의 의미는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60, 70년대에는 시내에서 공연·전시·발표회가 자주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아기가자기한 면이 있었었다. 따라서 대학축제기간에 실시되는 행사에 일반시민이나 중·고등학생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당연했다.

이러한 행사들 외에도 세계의상 전시회에서는 홀라춤과 함께 하와이 민속복장이 선보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지금은 볼 수 없는 카니발, 보디빌딩 등의 행사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고 한다.

서교수는 "축제기간에 물론 즐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아리나 학과주최로 공부·연구하는 것을 표출시키는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학생활에서 그간 배운 것을 주위에 내보이는 행사를 체계적으로 치러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양경주(영어교육 72년 졸)교수는 "당시 축제는 지금처럼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아기가자기한 면이 있었었다"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축제를 통해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장이었다"고 회상한다. 덧붙여서 "요즘 축제는 대학문화를 형성하고자 하지 않고 기성문화를 유입해 모방하려고만 한다"며 "대학인다운 실험적이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뤄지는 축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79년 제16회 용연제를 끝으로 캠퍼스가 아라동으로 이전되면서 축제의 이름도 '아라축전'으로 바뀌었다.

개교29주년기념 제17회 아라축전은 80년도에는 광주학생들 및 다른 유교조치로 인해 쉬고, 81년도에 치러졌다. 물론 요즘 부르고 있

無 論 有 說

뉴질랜드인의 친절



김민철

나는 5년전 뉴질랜드에 있는 연구소에서 1년 동안 연구를 한 적이 있다.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았지만 농업이나 축산 분야의 연구는 많이 수행되어 있어 나는 그 쪽 문헌을 많이 인용해 왔으므로 한번 꼭 가고 싶어 했었는데 마침 기회가 닿아서 그곳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 그곳에 가서 배우고 싶은 좋은 연구기술도 얻게 되었지만 그 곳 사람들의 훌륭한 생활자세와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려는 그들의 노력을 보고는 감동과 존경이 넘었다. 뉴질랜드에 가기 위해 뉴질랜드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은 후 뉴질랜드를 소개하는 작은 책자를 받았는데 그 책에서 뉴질랜드 사람들은 마음으로 깊이 우리나라의 친절을 배운다고 하였다. 나는 그 나라에 가서 생활을 하면서 그 표현이 아주 어울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가 있던 도시는 Palmerston North란 곳이고 그 곳 Rotary Club의 주최로 매년 외국인들에게 그 나라의 문화나 전통 등을 소개시켜 주기 위해 몇 가지 행사를 갖는다. 그 행사의 일환으로 그 지역의 민속마을을 방문하거나 파티를 통해 그 지역 사람들과 사귀면서 간단한 춤 또는 노래 등을 겸한 오락시간을 갖기도 한다. 한번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로부터 1시간 거리가 되는 Wanganui라는 도시에 2박3일 방문케 되었다. 각각 한 가정씩 소개되어 거기서 그 기간동안 지내며 그 집주인의 소개로 그 도시의 여러 관광지를 방문하였는데 하버만 자기를 갖도록 배려해 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Palmerston North로 다시 돌아 왔으며 고마웠다는 편지를 그분들에게 보냈다. 당장 회답이 왔다. 그다음은 편지를 보내지 못했다. 얼마 후 그분들이 다시 편지를 보내와 왜

다시 회답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후 그분들은 그 도시를 지나게 될 때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해 주곤 하였다. 크리스마스 때도 점심에 나를 초대해 주어 그 집에 갔는데 가서 보니 그 이웃에 혼자 사는 늙은 할아버지도 함께 초대했으며 푸짐한 식사와 훌륭한 선물까지도 주었다.

그분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었다. 또 한사람은 같은 연구소에 일하는 젊은 친구인데 그도 시간이 허락하면 휴일에는 나를 데리고 자기 친구네 목장 또는 관광지 등을 안내시켜 주는 등 여러가지 면에서 나를 도와주었다. 한번은 자동차가 필요하여 한대 구입하였는데 낡은 차를 잘못 사서 엔진 때문에 차를 팔아야 하는 일이 생겼다. 그가 차를 비소를 소개해 주었고 엔진을 교환하게 될때 몇 주간 매일 일하고 그 정비소에 같이 가서 함께 엔진 교환 작업을 도와 주었다. 나도 같이 그 작업을 하였는데 그보다 별로 많은 일을 하지 못했다. 흥미가 없었기 때문인지 생활습관이 다르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한번은 시내에 있는 여행사를 찾아가는데 그 위치를 몰라 길을 서성거리고 있노라니 미화원 아저씨가 저 멀리 있다가 달려와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느냐고 물어 그곳을 잘 가르쳐 주어 쉽게 찾은 적이 있다. 또 한번은 어떤 젊은 교통경찰관이 차가 깊은 낭떠러지에 추락한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왔다가 나이트 구난차 운전자가 지켜보는 동안 그 젊은 경찰이 직접 차를 추락

해 있는 위험한 현장을 밧줄을 타고 내려가 차를 잘 묶어 잘 올라 올 수 있게 도와 주었다.

또한 이 나라는 환경을 보존하는데 가장 역점을 많이 두어 잘 보존되고 있어 세계 여러 다른 나라에서 이 나라의 공기나 수질 등의 오염정도와 비교를 하러 온다고 들은 바가 있다. 그래서 뉴질랜드 사람들은 자연을 아름답게 지키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으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어 편하게 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런 소박한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온것인가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이것이 바로 농장에서 생긴 것이 아닌가 혼자 생각해 보았다.

뉴질랜드의 경제수준은 GNP 10,000불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이지만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경제발전이 빠르지 못하다. 그러나 인심이 좋고 아름다운 자연을 갖고 있어서 한번 가보았던 사람은 다시 더 가고 싶어 나라이다. 나와 같은 전공을 하는 어느 대학의 교수는 이 나라에 일년동안 다녀 온 후 연구소에서 일을 할 수 있다면 이민을 가고 노력했다는 소식을 들은 바가 있다. 나로서도 충분히 그 교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며칠전 어느 신문에서 티베트 출신 티탄초컬 스님이 우리나라 불교신자들이 절에 불공드리러 와서 주로 내 남편 사람 잡히고 내 자식 공부 잘되게 해 달라는 기도를 드려 매우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글을 읽은 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도 이제 GNP 10,000불을 넘 넘는다고 하니 배고파 했던 때는 지난 것 같으며 이제는 여유가 생겼으니 경제발전은 다소 느리더라도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집착을 버리고 추구를 때가 된 것 같다. 외국인이 와보고 한번 더 찾아오고 싶은 나라로 만드는데 농심도 큰 역할을 한다고 보아진다.

(축산학과 교수)

인풍원룸아파트 분양개시!!

신제주

제주도 최초의 원룸아파트

내 삶은 내가 만들어 간다!

확실적인 삶은 삶다.
남다른 멋으로 나만의 삶을 만들고 싶다.
내가 찾은 나를 담은 삶터-
내가 찾은 나를 담은 자유-
지금 나는 내 삶을 바꿔줄 나만의 원룸으로 간다.

제주 최초의 인풍 원룸아파트가
제주에 미래형 주거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전혀 다른 느낌의 삶터-
지금 그 느낌을 갖고싶다.

■ 이런 점이 좋습니다.

- 위치가 좋습니다.
- 전세가격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 호텔방처럼 아늑하고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 부담없이 살다가 부담없이 팔수 있어서 좋습니다.
- 가구설치가 간편해서 좋습니다.

● 특히 원룸아파트는 대학교수의 연구실로 그리고 독립된 생활과 개성을 추구하는 대학생에게는 더 없이 좋은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 아르바이트생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 ○○명

시행사·시공사

중요와 안락을 추구하는 기업

인풍종합건설(주)

모델하우스
OPEN



■ 원룸이란?

벽이 없어 사람이 확트인, 새로운 개념의 주거형태. 거주자의 개성과 감각에 따라 공간을 자유롭게 연출할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자유직업인, 신혼부부, 독신 남녀 등 독립된 생활과 개성을 원하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 인풍 1차아파트 조감도



■ 인풍 2차아파트 조감도

분양사무실 : (064) 47-0581
본사개발사업팀 : (02) 4747-114

평형 12평형, 14평형
15평형, 16평형
주택용자
1,400만원

◇외국어교육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교수 확보·프로그램 개발 등 시급 대다수학생 연중특강 개설 원해...학교측의 과감한 지원 절실

I.

이번 설문조사는 바로 '외국어 교육관의 제반 활동 상황에 대하여 우리 대학교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고, 아울러 학생들이 외국어 교육관에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강좌 개설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실시되었다.

조사 대상은 우리대학교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학과별, 단대별, 학년별 학생 구성비를 산정하여, 그 비율에 맞게 무작위 추출하였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외국어 교육관에서 특별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 50여명을 대상으로 추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보았다. 조사 방법은 설문지법에 의거하였으며, 문항수는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지 회수율은 99.3%였으며, 회수된 자료는 SPSS/PC+ 통계 분석법으로 통계, 처리하였다.

II.

외국어교육관이 개관하여 외국어의 연구와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개관했다는 표면적인 사실 정도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8.5%).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22.5%에 그쳤고,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도 9.1%에 이르는 것을 볼 때 외국어교육관에서는 이에 대한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외국어습득에 대한 열기가 높아지면, 최신 설비를 갖춘 외국어교육관의 탄생에 많은 기대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 아직도 대학 내의 다양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학생도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어교육관의 설립 목적이나 연구·교육 활동 등의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를 측정하는 문항에서는 단지 외국어를 가르치는 기관이라는 수준에서 이해를 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은 수치를 보였다(81.5%). 더욱이 잘 알고 있다는 학생은 6.4%로 앞의 문항에서 개관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던 22.5%의 학생들조차 이에 대해서는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혀 아는 바가 없다(10.1%)고 응답한 학생들도 상당수 있어 지속적으로 활발한 홍보를 통해 관심있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학습기회를 제공해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시설이나 교육프로그램 면에서 아직 미비한 상태에 있는 외국어 교육관에서는 시급히 착수해야 할 시설 또는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음향자료도서관(Sound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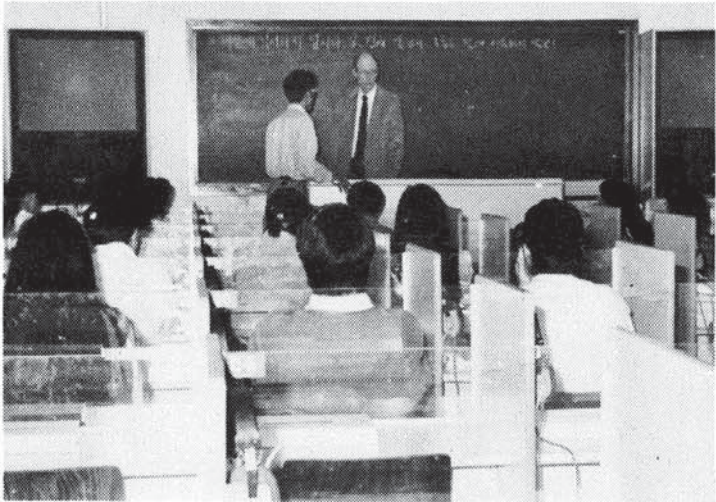
13.7%), 외국어 특강 개설(13%), 위성방송 공청설비(12.8%), 외국인 교수 확보(11.83%) 등을 꼽고 있는데, 이들의 비율은 서로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외국어 교육관의 개관이 이러한 모든 시설이 갖추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던 학생들의 입장에서 당연한 요청이며, 그동안 우리 대학이 학생들에게 외국어 학습을 위한 제반 여건과 분위기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외적인 발전과 질적인 성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학교 당국과 외국어 교육관에서는 시설과 프로그램의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신축 외국어교육관의 개관을 기다리던 학생들은 정작 강의 시간 외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공간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다양한 여학 교재를 자유로이 대출하고 개인별로 청취·발화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시급하며, 다소 생소하게 여겨지던 외국 방송 공청 시스템 등 외국어 실력 배양 뿐만 아니라 최신 정보 수집 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컴퓨터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학기 중에는 처음으로 실시되고 있는 외국어교육관의 특별강좌에 대해서는 69.2%의 학생들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전혀 모르고 있는 학생들도 30.5%에 달해 앞으로의 홍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 2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66.1%로 3, 4학년 학생들(82.7%)에 비해 훨씬 낮은 편이다.

외국어교육관에서 특별강좌 프로그램을 개설하지만 한다면 수강 하겠다(53%)는 학생이 많은 한편, 수강 결정은 프로그램에 보고 난 후 하겠다(42.2%)는 학생도 만만치 않았다. 즉 대부분의 학생들이 특별강좌 수강을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특별강좌 프로그램의 연구와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외국어 습득의 특성상 단계별 프로그램을 제시해 학습에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리라 본다.

특강시 원하는 외국어로는 영어가 지배적(70.3%)이었고, 일어(14.3%), 중국어(6.1%), 독어(4.4%), 불어(4.4%) 순으로 나타났다. 영어의 경우는 최근 입사 시험 등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추세로 볼 때 당연한 현상이며,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상 일본과의 관계가 밀접함으로 인해 일본어의 강세도 여전한 현상이다. 다만 그 외의 외국어인 경우에는 전공 학생들의 선택인 것으로 판단된다.



◇명실상부한 외국어교육관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에 필요한 프로그램개발과 외국인교수확보가 시급하다.

제2외국어에 대한 관심이 있어도 당장 눈 앞의 현실을 감안할 때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강의 유형으로는 작문(6.3%)이나 독해(5.1%) 강좌보다는 회화(50.12%), 청취(38.31)강좌를 훨씬 선호하고 있었고, 영어 특강인 경우에는 외국인과의 Free Talking(21.16%), 외국인 지도의 초급 회화(17.3%), 기초회화(17.3%), TOEIC청취(10.63%) 등의 강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 중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학생들이 취업 시험에 대비해서 TOEIC 청취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문어적인 것을 중요시하던 이전의 학습 경향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응답이다. 물론 시험 경향이 구어영역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들은 문장에 대한 이해와 구어영역에 별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문장을 이해할 능력이 없으면 청취와 말하기 능력의 향상에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쉽게 외국어 학습을 포기하게 되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음을 학생들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문항에서 또 한가지 지적해야 할 중요한 문제는 외국인 교수와 확보 문제이다. 현재의 특별강좌 프로그램에는 외국인 교수의 강의가 전혀 없는 실정으로 많은 학생들이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며, 교수 확보 문제는 외국어교육관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해서 안될 사항은 외국인 교수의 강의를 통해 효과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학생들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외국어의 기초를 마련하려는 학생들을 위하여 무조건적인 외국인 교수와의 접촉

이전에 외국어 강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이 또다른 특별강좌 등을 통해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학생들은 취직, 진학 등의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특별강좌를 수강하는 경우가 많았고(43.7%), 고등교육을 받은 지성인이 당연히 갖추어야 할 교양으로 외국어를 습득하려 한다는 학생들의 반응도 의외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37.9%). 이는 대학의 '사실학원화'라는 현재의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켜주는, 아직은 건강한 대학의 면학 풍토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특히 1, 2학년에서 시험 대비용으로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은 아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39.9%) 앞으로 이들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 지 궁금하다.

학생들은 특별강좌를 연중 개설해주시길 바라고 있으며(56.2%), 특히 이 항목에 대해서는 현재 특강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85.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현재 타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특별강좌인 경우 한달 간격의 단기 강좌보다는 단계별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며, 타 언어를 '습득'하는데는 이런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임을 감안할 때 체계적인 특별강좌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별강좌에 대한 홍보는 교내 광고 포스터(50.3%)와 제대신문(35.1%)을 통한 홍보 방법이 가장 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내 홍보 포스터와 제대신문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어 실력 배양을 위한 본인 의 노력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노력하고 있다(42.1%)는 응답과 그렇지 않다(39.4%)는 응답이 대조

슐하르방 미국산 농약뿐인가

브루스 윌리스,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등 할리우드의 쟁쟁한 스타들이 서울 한복판에 음식점을 개업한 가운데 얼마전 미국이 한국여성을 희롱하고 이를 말리던 시민에게 폭력을 가하고 도법에서는 오리발을 내미는 사건이 벌어졌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는 거대한 손은 우리 식탁까지 위협속에 몰아넣고 있다.

지난 26일 미국의 한 농부가 수확된 오렌지에 새긴 농약가루를 뿌리는 모습이 보도되면서 미국에서 수확하는 농산물에 농약이 대량 살포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우리의 수입농산물 대부분이 미국산이니 농약까지 수입해 먹고 있는 셈이 아닌가. 93년 국내에 수입된 미국산 밀에서 허용 기준치의 1백32배나 되는 농약이 검출돼 큰 파장을 빚은지 2년만에 다시 농약 문제가 터진 것이다.

미국산 오렌지에는 메치타치온, 네마키, 포스트린, 데이크 등 18종의 살충제가 묻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수입 밀에

는 클로르키리코스테릴, 말라치온, 파라미포스테릴 등 많은 종류의 농약이 살포되고 있으며 이 농약에 중독될 경우 신경계에 이상을 일으켜 기형아까지 출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미의회 기술평가국(OAT)도 지난 26일 미국에서 농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살충제의 상당량이 제대로 통제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농약사용에 문제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우리에게 소고기 등 냉장식품의 유통기간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유인책은 냉장식품의 유통기한이 보름이어서 미국의 냉장 소고기가 국내에 도착한 뒤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이 하루이틀밖에 안되기 때문에 국내 시장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즉 자국민만 안전하면 됐지만의 나라 국민이 농약을 먹든 색은 고기를 먹든 상관할 바 아니라는 것이다.

수출력만 높여 자기들 배만 채우면 된다는 교착한 심보다.

농산물 시장 개방후 농약과다 검출, 병충해유입 등의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역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미국산 수출농산물에 농약대량살포사건은 그 필요성을 더해주고 있다.

하지만 수입농산물에 대해 '선통관 후검사'로 맞서는 한,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처사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미국의 입김에 언제나 눌려지내는 우리의 심정을 볼 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정부는 이번 농약살포사건을 철저한 조사항과 동시에 수입식품검사와 검역체계를 강화해야 마땅하다. 2004년까지는 국내 농산물 시장에 완전히 열리게 되는 실정에서 현상태를 개선하지 않는 것은 우리국민들에게 농약이 뒤범벅이 된 식품을 먹으란 말밖에 안된다.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다면 정권의 존립도 위협받을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오유진 기자)

를 보이고 있다. 놀라운 일은 매우 노력하고 있다는 학생(6.4%)이 소수에 불과한 반면 노력하고 있지 않다(12.2%)는 학생 또한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는 외국어를 아예 외면해버리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더구나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사실상 외국어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음을 뜻하고 있어서 우리 대학 학생들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있다. 1, 2학년(39.2%)보다는 3, 4학년(55.0%)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니 이것은 '보아 대체로 진로 결정에 당면하게 되는 3, 4학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외국어 학습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외국어는 단시간에 습득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런 분위기의 쇄신이 필요하리라 본다.

학생들은 학원 수강(19.4%)과 교내 특강(10.8%)보다는 언론매체나 정기 간행물 등을 이용하여 스스로 학습하는 경우(59.0%)가 많았고, 취업 및 유학 등에 관련된 외국어의 정보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언론매체나 정기 간행물을 이용하여 얻고 있는(74.7%) 것으로 밝혀졌다. 효율적인 외국어 학습을 위해서는 학원이나 교육활동, 외국어교육관에 구비하기를 원하는 교재, '외국어교육관 강의실 시설에 대한 소감' 등이 그 내용이다. 외국어교육관에 요구하고 싶은 시설이나 교육 활동 면에서는 특별강좌 관련 내용이 가장 많았으

며 특별강좌 프로그램, 강의 방법,

시간대 등에 관한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었다. 다음으로는 Sound Library를 비롯한 시설물 활용에 관한 내용과, 외국인 교수 확보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다양한 정보 및 자료를 비치해 명실상부한 세계 속의 외국어교육관으로 자리잡아 가길 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더 나은 시설들이 계속 들어서길 바라고 있었으며, 홍보 및 주위 환경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학생들이 원하는 교재들은 주로 대중매체를 통해 잘 알려진 생활영어교재라든가, TOEIC, TOEFL, 시사잡지 등으로 나타났다.

강의실 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사용법 미숙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앞으로의 관리 문제에 대한 의견들이 많았다.

III.

이번 설문 조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외국어는 '외국어와의 전쟁'이라 불릴 만큼 중요하고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취직·진학 시험 등의 유형의 변화로 인해 달라져가고 있는 외국어 학습의 방향과 학생들의 다양한 의사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었다. 앞으로 외국어교육관에서는 학생들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면서 질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의 연구와 개발에 전력을 할 것이며 좋은 시설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부향순(외국어교육관 조교)

국산담배 더 좋은데 외산담배 웬말이나!

— '95년 4월말 현재 도내 외산담배 점유율

	일본담배	미국담배				계	외산담배시장점유율
	J T I 사	P M 사	R J R 사	B & W 사	기 타		
외산비율	66.3%	20.7%	5.7%	6.5%	0.8%	100%	8.2%

— 광복 50주년! 일본담배 추방하자.

제주대학교내 외산담배 점유율 8% 육박

— 국산담배 애용은 우리지역 경제와 직결됩니다.

▶ 국산담배 한갑을 구입 할 경우 460원의 담배소비세와 공익기금(환경부담금, 의료부담금, 농민보호지원금) 20원을 출연 480원을 부담합니다.

▶ 담배소비세는 지방세로, 매월 국산담배 판매량에 따라 시·군에 납부되어 지역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지성인들의 모임터인 캠퍼스에서 외산담배 만큼은 배척되어야 하겠습니까

2학기부터 과밀강의 사라진다

27개 교과목, 수강인원 120명으로 제한

6월13일까지 제2학기 수강신청서 접수

수업과(과장·김명섭)에서는 지난 5월23일 95학년도 제2학기 전공·교양등 1천7백53개에 대한 설강교과목 및 수강신청기간을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개설되는 교과목으로는 △인문대 2백2개, △법정대 49개, △경상대 1백15개 △사범대 1백44개 △농과대 1백50개 △해양대 1백22개 △자연대 1백64개 △공과대 2백52개 △야간강좌부(법정대) 47개 △야간강좌부(경상대) 42개 △교양 4백66개(수강반수)등이다.

제2학기 개설교과목에 대한 수강신청은 오는 5월31일부터 6월13일까지 실시되며, 수강신청변경기간은 8월21일부터 26일까지 마련된다.

수업과에서는 특히 올해 제2학기 수강신청시부터는 과밀강의 해소를 위해 수강제한 교과목을 선정하여 학생들의 수강신청시 반드시 담당교수의 수강승인을 얻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같은 조치는 94학년도 제2학기부터 과밀강의 대상 교과목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수강반을 개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교과목에만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학기초 정상적인 수업진행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에 따라 이의 개선책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수업과 이창기선생은 "이번의 기회가 학생들의 수강신청기회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수업적정 인원을 정하여 미리 분반함으로써 과밀강의를 근본적으로 해소함으로써 효과적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취지에 사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강제한되는 교과목으로는 △교양한문 △미술감상 △미술의 이해 △음악감상 △음악의 이해 △현대사회와 매스컴 △환경과 문화 △심리학개론 △가정위생 △애완동물의 이해 △인간과 건강 △인간과 스포츠 △배구 △축구 △농구 △소

프트볼 △리듬운동 △탁구 △볼링 △테니스 △한국문학작품 감상 △제주사의 이해 △한국현대사 △고고학의 이해 △한국사 △철학 △북한및 통일론 등 27개 과목으로 지금까지 수강신청 학생수가 1백20명 이상 있었던 과목들이다.

한편 수업과에서는 학생들이 수강신청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제2학기 '수강편람'과 '교양교과목 교수계획서'책자를 발간 대학 및 각 학과 사무실에 배부했다.



◇4천여명의 도민·학우들의 어우러짐속에 지난 26일 탐동 해변공연장에서 개최된 CEBS 아라가요제 모습.

‘아라가요제’ 성황이뤄

이경희양 최우수상 받아

교육방송국(실무국장 최형석 해양환경공3)주최로 지난 5월26일 탐동 해변공연장에서 열린 '제15회 CEBS아라가요제'에서 '변명'을 부른 이경희(국문2)학우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4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가요제에서는 모두 8개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벌였으며 가수 안지환과 음악학과 학우들이 특별출연해 가요제의 흥을 돋구었다.

이날 가요제의 심사위원(음악)교수 이준기(국문2)교수 안성수(교육방송국 주간·국교)교수 임창훈(제주MBC PD) 김세균(제주 KBS 편성부장)등 5명이 맡았는데 입상한 수상자와 수상곡은 다음과 같다.

최우수상=이경희 △우수상=임유자(제주전문화대 관광과 학우들이 특별출연해 가요제의 흥을 돋구었다.

영어통역2) '1990, 나의 동화' △장려상=김주영(제주교대 체육교육2) '영원한 사랑' 한영 교육방송국은 이날 행사도중 우리대학 발전기금으로 측에서 모금한 19만8천70원을 기탁했다.

‘제주농업’ 제4호



제주농업발전연구소(소장 강지용 농업경제학과 부교수)에서는 지난 5월20일 『제주의 농업과 경제』 제4호를 발간했다.

지난 11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격월간지로 발간되고 있는 이 책은 △특집 '제주도 농·축·수산업 분야별 세계화 전략' △특별기고 '작물생육과 토양' (현해남 농화학과 조교수) △해외정보 '해외농업정보' △95년 제주지역 경제전망 등이 실려있다.

학술발표회 개최

기초연 지난 24일

기초과학연구소(소장 최치규 물리학과교수)에서는 지난 5월24일 자연대 세미나실에서 '제3회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발표회에서는 △Some Vanishing Theorems on KAHLER Foliations=정승달(수학과 전임강사) △quarkonium (quarkonium)모형에 따른 중간자 에너지=현남규(물리학과 부교수) △Organopalladium Approaches to Prostaglandins=이남호(화학과 전임강사) △Hormonal Regulation of Drosophila Development=김세재(물리학과 조교수)등 4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청류』 제12호

국민문리교육과(회장 오윤진 3)학회지 『清流』 제12호가 지난 4월에 발간됐다.

이 책에는 △교육시장 개방 현황과 정부의 교육개혁정책(원정부) △권위주의 체제의 위기에 대한 고찰(임정희 3) △교수칼럼-평양에도 봄은 오는가(김영수 객원교수) △앨빈 토울러의 '정경과 반전'에 대한 서평(한영주 6월호)등 다수의 글이 실려있다.

‘단백질 티로신...’ 주제

조형진 교수 초청강연

화학과(학과장 변종철 조교수)에서는 지난 5월26일 자연대 세미나실에서 '단백질 티로신 인산가수분해효소의 기질 특이성에 대한 연구'란 주제로 조형진(인하대 화학과)교수 초청강연을 개최했다.

감자캐기 등 농활전개

제총협 6일까지 한림 대정동 6개지역서

95학계 농촌봉사활동(이하 농활)이 제주지역 총학생회 협의(상임의장 이필승 제주전문화대 총학생회장, 이하 제총협)주관으로 오는 6월2일부터 6일까지 4박5일간 한림지역을 비롯한 도내 6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제총협에 따르면 △공과대는 한림읍지역 △자연대와 한라전문화대는 한림읍지역 △동아리연합회와 경상대는 안덕면지역

△사범대와 법정대 제주교육대는 대정읍지역 △인문대와 해양대 관광전문대는 성산읍지역 △농과대와 야간강좌부 제주전문화대는 조천읍지역에서 각각 4박5일간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도와 보리베기, 감자캐기, 유채베기 등의 근로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이번 농활은 농산물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촌 사정을 극복해 나갈 방안을 농민들과 함께 모색하는 자

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총학생회(회장 이봉실 농경제4)에서는 농활기간에 하계농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조천지역 등에서 농촌탁아활동을 벌인다.

농활 참가신청은 6월1일까지 각 단대학생회 및 총학생회에서 받고 있으며 하계농촌봉사활동 출정식은 오는 6월2일 오후5시30분 탐동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임주영 김소영 최우수상 차지

미술과 주최 전도 중고생 미술실기대회

미술학과(학과장 김방희부교수)주최 '제17회 전도·중·고등학생 미술실기 대회'에서 임주영(제주여중3) 김소영(제주여고1)학생이 각각 중·고등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지난 5월24일 우리대학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도내 고등학생 수채화·한국화·조소부문 3백16명, 중학생 수채화부문 4백4명등 7백20명의 학생들이 참가, 실력을 겨뤘다.

이날 미술학과에서는 작품점수마감과 동시에 전공분야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고등부 최우수상 1점 우수상 7점 특선 11점 입선 82점 △중등부 최우수상 1점 우수상 5점 특선 14점 입선 1백31점 등 총2백52점을 선정했다.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6월

16일 사범대 3340강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부문별 입상자와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고등부 △최우수상:수채화=김소영(제주여고1) △우수상:한국화=이정란(남녕고3), 조소=조정숙(세화고3), 수채화=고원기(서귀고3) 오승민(남녕고1) 안준(제주상고3) 조병근(한림공고1) 진연수(제주여상3) △특선:한국화=이소정(사대부고2), 조소=문선영(중앙여고3), 수채화=김복선(중앙여고2)등 9명 △입선:한국화=홍준민(제주여고3)등 6명, 조소=양동훈(제주상고3)등 6명, 수채화=현지선(제주여고3)등 70명.

▲중등부(중등부는 수채화부 아만함) △최우수상=임주영

(제주여중3) △우수상=강형준(제주중2) 허균(제주중3) 고보미(제주여중2) 홍미연(제주여중2) 한아름(합덕중2) △특선=현광훈(사대부중2)등 14명 △입선=고영관(제주서중1)등 1백31명

▲심사위원 △한국화=부현일교수, 김현숙시간강사, 고경희시간강사 △조소=김방희부교수, 양용방시간강사 △수채화=허명순교수, 양창보교수, 김용환교수, 김택희시간강사.

소리열정기공연

노래패 소리열(회장 이창수 화학공 3)에서는 5월29일 법정대 강당에서 '키치적 인간'의 키치에 대한 필요'를 공연했다.

치환을 보려 온 건지 알 수가 없어.

지난 26일 탐동 해변공연장에서 열린 아라가요제중 가수 안지환의 축하공연이 끝난후 음악학과 축하공연과 시상식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최측과 일부 관객만 빼고 도중에 빠져 나가는 소동이 발생,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주최측은 어안이 벙벙.

모범 보이라

무슨 그리 급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소만 공연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에티켓은 지킬 수 있어야 하지 않겠소.

○...나살고 너죽자!

'자신들의 실리에 맞으면 무슨 짓이든 한다'는 식의 미국관 눈부심보가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학우들은 아는지.

미국은 자국의 국민들이 먹는 농산물에는 농약살포기준을 강화하면서 밀, 오렌지 등의 수출농산물에는 허

용기준치의 1백배이상까지 농약을 살포해 팔아먹고 있다는 사실.

"미국의 배부른 소수 농민들을 위해 전세계의 힘없고 가난한 국가의 농민들은 죽어다오."

○...한입 갖고 두말하기.

지난달 5월8일부터 시작된 대학노련과 국립 7개대학 대표간의 근로조건개선협상이 계속 결렬되는 가운데 몇몇 학교측에서 한입갖고 두말하는 사건이 발생, 지켜보는 이들의 입을 다물게 했다.

대학노련측과 대학대표자들은 지난달 23일 4차 교섭에서 '공동교섭하기로 원칙적 합의'함에 따라 5차 교섭때 공동으로 단체협약을 맺을 예정이었으나 경북대와 전남대가 갑자기 종래 방침을 번복해 버림으로써 대학당국에 대한 불신의 벽만 높아져 버렸다고 하니, 책임있는 자리에서 한번 결정한 사항을 다시 번복하는 처사도 문제라니와 노조측과 대학측은 서로가 성의를 다해 타협을 봄으로써 배우는 학생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었으면 하오.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철폐촉구

총여, ‘주한미군 범죄 규탄성명’ 통해

총여학생회(회장 이봉실 농경제4)에서는 지난 5월19·21·22·24일 잇따라 발생한 미군의 범법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총여학생회에서는 지난 25일 '주한미군범죄 규탄 성명서'를 통해 '91년 한미행정협정이 개정된 이후에도 미군범죄가 연평균 2천여건 발생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재판을 행사해 미군을 처벌한 것이 0.7%에 불과하다"면서 "전 시도 아닌 때에 미국에 의한 폭행이 난무하고 있는 것은 안하무인의 주한미군과 굴욕적인 저자세로 일관하는 한국정부의 무기력한 때문"이라 지적했다.

총여에서는 특히 "미군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주한미군의 치외법권을 인정하는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SOFA)에 있기 때문에 이를 즉각 철폐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발전 기금 조성 운동에 다함께 참여 합시다

새마을금고 주인은 회원입니다.

새마을금고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이런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한가족공제

한가족 공제란?

불의의 사고시 그로 인한 경제적 불안을 해결하고 안정된 생활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새마을금고 생명공제(보험)첫 상품입니다.

♥한가족공제의 특징

- 공제료가 저렴하고 공제기간이 짧아 목돈마련에 유리
- 간편한 가입(건강진단 생략)
- 해지환급금 90% 범위내 대출
- 가입즉시 사망또는 재해장시 충분한 보상
(예) 계약자 40세(남) 공제계약 2,000만원, 재해사망 3배형, 5년 1회 274,000 납입후 재해사망시 8,000만원 보상금 지급

♥가입안내

- 가입연령:20~70세
- 공제기간:3년, 5년
- 가입한도:100만원 2,000만원
- 특 약:재해사망, 가족재해, 암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찾아주세요.



2. 펌킹(온라인)업무개시

'95.5.15개시

새마을금고가 은행 P.C통신망을 연결하여 전국 소재 은행에 송금이 가능하고 또한, 새마을금고 간 회원송금 및 각종 최신 금융정보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3. 여·수신업무

- 출자금 1,000만원, 예·적금 2,000만원까지 이자 및 배당금에 대한 세금면제
- 대출서류 간편
- 대출:최고 신용 1천만원, 담보 1억원 가능
- 새마을금고는 안전기금 제도가 있어 예·적금에 대한 환급이 보장됩니다.



새마을금고연합회제주도지부 ☎58-4260-5

서평 『PRESIDENTIAL POWER』 Neustadt지음

대통령 권력의 핵심, 제도보다 설득력에 있다

1960년 Neustadt 『Presidential Power』의 출간은 대통령 리더십의 현실적 실체를 이해하는데 개척자적 역할을 한 것으로 큰 호평을 받았으며 그러한 찬사는 아직도 변함없다. 또한 책이 출간된 이후 이는 케네디 대통령이후 미국 대통령들에게는 비공식적인 교범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안에는 일견 막강해보이는 미국의 대통령의 권한은 무엇이며, 그 실체는, 그리고 그의 행사를 위해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자질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케네디와 존슨 대통령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케네디 대통령은 저자를 그의 보좌관으로 기용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영향력의 근거는 무엇인가? 먼저 그는 리더의 자질을 판단하는데 있어 종래의 관점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며, 또한 대통령직을 연구하는데 있어서의 전통적인 법률적 내지 기능적 측면에서의 역할에 따른 연구를 넘어서고 있다는 데 있다. 대신 Neustadt는 만약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한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한 왜 그리고 어떻게 역대 대통령들이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에 관한 접근의 틀로써 조직적 내지 행정적 행태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는 권력의 분리라는 측면보다 대통령 직에 따르는 권력의 공유를 강조한다. 그는 영향력의



상호적 성격,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이해득실계산 그리고 교환관계를 제시하며, 이에 따라 주위의 사람들은 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에 협력하기도 하며 또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이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대통령이라는 작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강하지도 않으며 또한 그렇게 두려워해야 할 정도로 대단한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시사하는 바는 앞으로의 대통령의 권한은 그가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통령은 그 책에 비해 공식적으로 제도화된 권한이라는 것은 현상상 간단하며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그의 주장의 중심내용을 보면 대통령의 권력의 핵심은 그가 가진 설득력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즉 상호협상을 통해 그가 이끌어 낼 수 있는 설득력을 대통령이 발휘하는 능력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여기서 협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통령

에 협조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일이다. 여기에 나타나는 대통령직은 끊임없이 그의 권력이 도전받을 것이다. 따라서 그는 기업가적인 수완을 발휘함으로써 그 역시 지속적인 협상자로서 그의 위치를 공고히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적절한 시기선택과 인내가 요구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FDR, Truman Eisenhower대통령을 평가하고 있다.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것은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예리한 능력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모든 기용 정보체계를 동원하여 현안에 대한 감지, 협상상황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그가 동원할 수 있는 권력적 재원에 대해 지속적인 민감성의 발휘가 요구된다. 이렇듯 할때만이 대결구도에서의 직접적인 명령상황과 그에 수반되는 정치적 비용을 피할수가 있게 된다. 그외에도 그가 최고의 리더십에 요구하는 자질로서는 첫째, 결단력이 수반된 정치적 권력에 의지한다. 이러한 정치적 능력은 다른 사람의 지지를 획득하는데 필수적이며, 이럴때만이 정부는 그 활동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 즉 오로지 대통령만이 정부의 주요 의제(안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둘째로, 대통령은 국정운영에 있어서 관계를 갖게되는 상대방(예로서 국회의원 내지 정부주변의 영향력 있는 인물 등)에 대해 협상능력을 가져야만 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

이며, 서로 대비되는 정책적 관점이란 어떠한 것인가에 보다 민감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점을 발견하게 되고 비로소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대통령은 어떠한 특정사건이나 위기에 국면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항상 권력의 중심에 머물러야만 한다. 즉 중요한 결정상황에 있어 그의 권한을 이양한다는 것은 항상 그의 영향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모든 정보에 정통해야 하며 권력관계에 있어 전문가적 기질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Neustadt의 업적은 대통령의 힘은 근원이 무엇인지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하고자 한 데 있다. 즉 대통령의 권력은 상대방을 설득시켜 그가 의도하는 바의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는 능력에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다른 기관들과 권력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명령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단지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협상과 교환을 시도할 수 밖에 없다. 이책을 통해 그가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대통령직을 접근할때 단순히 법적 내지 제도적 접근보다는 대통령 개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적 힘의 내용에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이럴때만이 리더 또는 정책결정자로서 그의 성패를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경원 행정학과 조교수

과학이야기

초파리 발생과 호르몬



김세재

노랑 초파리(Drosophila melanogaster)는 전세계적으로 분포하는 파리목(Order Diptera), 초파리과(Family Drosophidae)에 속하는 곤충으로, 1900년대부터 유전학 실험 재료로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초파리에 대한 풍부한 유전학적 지식이 축적되어 있고 수많은 돌연변이체(mutant)들이 알려져 있다. 초파리는 완전변태를 하는 곤충으로 발생단계는 알, 유충, 번데기, 그리고 성충의 4기로 대별할 수 있으며 각 발생단계는 호르몬적 신호(hormonal signals)에 의해 조절된다. 초파리가 낳은 알은 22시간 정도 발생이 진행되면 부화(hatching)되어 1령 유충이 된다. 1령 유충이 성장함에 따라 표피도 커져야하므로 탈피(molting)를 해서 2령 유충이 되고, 2령 유충이 성장하여 탈피하면 3령 유충이 된다. 이러한 연속적인 탈피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ecdysone에 의해 개시된다. Ecdysone은 뇌의 신경분비세포에서 분비되는

prothoracicotropic hormone (PTTH)의 자극으로 ring gland에서 합성된다. 또한 corpora allata에서 분비되는 유충호르몬(juvenile hormone)은 유충의 탈피와 번데기를 억제하는 작용과 유충시기동안 혈림프(hemolymph)내에 존재하며 유충 특이적 구조를 유지해 주는 작용을 한다. 3령 유충말기가 되면 유충호르몬의 농도는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에 ecdysone이 다량 합성되어 용화(pupation)가 일어난다. 번데기과정(metamorphosis)은 ecdysone에 의해 개시되는 연속적인 유전자 발현의 결과로 유충조직은 퇴화되고 성체원기(imaginal discs)는 성체 특이적 기관으로 분화되어 성충으로 탈피된다. 발생단계에서 호르몬은 어떠한 기작으로 작용할 것인가? 초파리 호르몬 중에서 ecdysone의 분자적 작용기작에 관해서는 그 실체가 밝혀지고 있다. Ecdysone은 세포막을 투과해 들어가 세포내 존재하는 수용체(receptor)와 결합하여 표적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하게

나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ecdysone에 의해 유발되는 작용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분자적인 수준의 작용 기작을 설명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초파리는 상대적으로 다른 곤충에 비해 크기가 작다는 약점이 있지만, 현재까지 축적된 풍부한 유전학적 연구배경과 더불어 유용한 돌연변이체들을 연구에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초파리에서는 유전자 조작 기술을 이용해서 형질 전환된 초파리(transgenic flies)를 손쉽게 얻을 수 있어서 특정 유전자의 기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가 비교적 수월하다. 최근에는 이런 실험적 기법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호르몬의 작용 기작을 분자적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초파리 연구에서 얻은 결과들은 더욱 복잡한 고등동물의 호르몬 작용을 연구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생물학과 조교수)

그러하다. 온 세계의 모든 흡연자들이여, 자신과 가족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하여 금연을 생각해보기를 (권미영 생물1)

어른들부터 금연

청소년에게 모범보이라

요즘 청소년들의 흡연 문제로 매스컴마다 난리다. 언젠가 TV를 보다가 청소년의 흡연 문제를 다룬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

남학생은 물론이고 여학생들도 흡연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거의 고1때 피우기 시작했다는 나 혹은 중3때...

이렇게 어린 나이부터 피우기 시작한 학생들이 많았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들이다. 요 근래에 특히 여성의 흡연은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TV에 남학생 1명과 여학생 2명이 나와서 얘길하는데 담배를 피우게된 동기가 호기심과 친구의 권유라는 것이다. 친구들 사이에서 저 혼자 안피면 괜히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 피우게 된다는 여학생

■ '세계금연의 날' 부처

당연시하는 여성흡연
한번쯤 생각해 보자

오늘은 세계금연의 날이다. TV·라디오에서 "금연"이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 인사말이 "오늘은 금연의 날인데요"로 시작하고 있었다. 요즘은 점점 금연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금연의 날을 정할 필요는 없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금연을 동네방네 떠들며대면 금연을 생각하지 않던 사람들도 금연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요즘 어른들은 점점 담배를 끊자는 쪽으로 다가가고 있지만 반면에 담배를 피우는 평균 연령이 낮아져가고 있으며 여자들까지도 담배를 피우는 것이 당연시되어가고 있다. 여자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하는 말은 아니다. 그저 우리나라에서

옛부터 생각하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여자들은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을 말한 것 뿐이다. 나는 남녀평등을 부르짖는 쪽을 지지하고 있으므로 여자는 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는 말에 반대하지만, 이런 말에 반기를 들기위해 오기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본다. 그러니까 내말은 모든 흡연자들이 자신의 몸을 위해 주위 환경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금연을 생각해보는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나는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담배를 피우는 것은 그 행위를 정당화시켜줄 뭔가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 작은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 잃는 것은 실로 크다. 담배불로 인한 화재,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이

아라시단

고호의 편지

현승우 (에너지공 2)

진한 커피향보다
성애된 유리창에 끄적이던
작은 기대감이 좋던 공간에서
어색하던 첫인사와
담배연기에 희미해지는 뒷모습과
작은 종이 한장

더이상 아파하지 않기로
더이상 울리지 않기로
원래 혼자였기에

자화상, 고호
그가 내게 편지를 쓴다
너는 죽어 있다고...?

새로 나온 책

『에비된 시간을 숨기며』

제주시조문학회의 세 번째 시집 『에비된...』이 도서출판 디딤돌에서 출간됐다.

이 시집에는 이용상의 「신촌 큰물」, 현춘식의 「산낙지의 꿈」 양영길의 「세모의 거리에서」 문태길의 「무수천」 김영홍의 「가파도」 등 15명 회원의 작품 74편이 실려있다.

『에비된 시간을 숨기며』

제주시조문학회의 세 번째 시집 『에비된...』이 도서출판 디딤돌에서 출간됐다.

이 시집에는 이용상의 「신촌 큰물」, 현춘식의 「산낙지의 꿈」 양영길의 「세모의 거리에서」 문태길의 「무수천」 김영홍의 「가파도」 등 15명 회원의 작품 74편이 실려있다.

『에비된 시간을 숨기며』

제주시조문학회의 세 번째 시집 『에비된...』이 도서출판 디딤돌에서 출간됐다.

이 시집에는 이용상의 「신촌 큰물」, 현춘식의 「산낙지의 꿈」 양영길의 「세모의 거리에서」 문태길의 「무수천」 김영홍의 「가파도」 등 15명 회원의 작품 74편이 실려있다.

『에비된 시간을 숨기며』

제주시조문학회의 세 번째 시집 『에비된...』이 도서출판 디딤돌에서 출간됐다.

이 시집에는 이용상의 「신촌 큰물」, 현춘식의 「산낙지의 꿈」 양영길의 「세모의 거리에서」 문태길의 「무수천」 김영홍의 「가파도」 등 15명 회원의 작품 74편이 실려있다.

『에비된 시간을 숨기며』

제주시조문학회의 세 번째 시집 『에비된...』이 도서출판 디딤돌에서 출간됐다.

이 시집에는 이용상의 「신촌 큰물」, 현춘식의 「산낙지의 꿈」 양영길의 「세모의 거리에서」 문태길의 「무수천」 김영홍의 「가파도」 등 15명 회원의 작품 74편이 실려있다.

『에비된 시간을 숨기며』

제주시조문학회의 세 번째 시집 『에비된...』이 도서출판 디딤돌에서 출간됐다.

이 시집에는 이용상의 「신촌 큰물」, 현춘식의 「산낙지의 꿈」 양영길의 「세모의 거리에서」 문태길의 「무수천」 김영홍의 「가파도」 등 15명 회원의 작품 74편이 실려있다.

『에비된 시간을 숨기며』

제주시조문학회의 세 번째 시집 『에비된...』이 도서출판 디딤돌에서 출간됐다.

이 시집에는 이용상의 「신촌 큰물」, 현춘식의 「산낙지의 꿈」 양영길의 「세모의 거리에서」 문태길의 「무수천」 김영홍의 「가파도」 등 15명 회원의 작품 74편이 실려있다.

『에비된 시간을 숨기며』

제주시조문학회의 세 번째 시집 『에비된...』이 도서출판 디딤돌에서 출간됐다.

이 시집에는 이용상의 「신촌 큰물」, 현춘식의 「산낙지의 꿈」 양영길의 「세모의 거리에서」 문태길의 「무수천」 김영홍의 「가파도」 등 15명 회원의 작품 74편이 실려있다.

『에비된 시간을 숨기며』

제주시조문학회의 세 번째 시집 『에비된...』이 도서출판 디딤돌에서 출간됐다.

이 시집에는 이용상의 「신촌 큰물」, 현춘식의 「산낙지의 꿈」 양영길의 「세모의 거리에서」 문태길의 「무수천」 김영홍의 「가파도」 등 15명 회원의 작품 74편이 실려있다.

『에비된 시간을 숨기며』

제주시조문학회의 세 번째 시집 『에비된...』이 도서출판 디딤돌에서 출간됐다.

이 시집에는 이용상의 「신촌 큰물」, 현춘식의 「산낙지의 꿈」 양영길의 「세모의 거리에서」 문태길의 「무수천」 김영홍의 「가파도」 등 15명 회원의 작품 74편이 실려있다.

『에비된 시간을 숨기며』

제주시조문학회의 세 번째 시집 『에비된...』이 도서출판 디딤돌에서 출간됐다.

이 시집에는 이용상의 「신촌 큰물」, 현춘식의 「산낙지의 꿈」 양영길의 「세모의 거리에서」 문태길의 「무수천」 김영홍의 「가파도」 등 15명 회원의 작품 74편이 실려있다.

『에비된 시간을 숨기며』

제주시조문학회의 세 번째 시집 『에비된...』이 도서출판 디딤돌에서 출간됐다.

이 시집에는 이용상의 「신촌 큰물」, 현춘식의 「산낙지의 꿈」 양영길의 「세모의 거리에서」 문태길의 「무수천」 김영홍의 「가파도」 등 15명 회원의 작품 74편이 실려있다.

『에비된 시간을 숨기며』

제주시조문학회의 세 번째 시집 『에비된...』이 도서출판 디딤돌에서 출간됐다.

이 시집에는 이용상의 「신촌 큰물」, 현춘식의 「산낙지의 꿈」 양영길의 「세모의 거리에서」 문태길의 「무수천」 김영홍의 「가파도」 등 15명 회원의 작품 74편이 실려있다.

『에비된 시간을 숨기며』

제주시조문학회의 세 번째 시집 『에비된...』이 도서출판 디딤돌에서 출간됐다.

이 시집에는 이용상의 「신촌 큰물」, 현춘식의 「산낙지의 꿈」 양영길의 「세모의 거리에서」 문태길의 「무수천」 김영홍의 「가파도」 등 15명 회원의 작품 74편이 실려있다.

『에비된 시간을 숨기며』

제주시조문학회의 세 번째 시집 『에비된...』이 도서출판 디딤돌에서 출간됐다.

이 시집에는 이용상의 「신촌 큰물」, 현춘식의 「산낙지의 꿈」 양영길의 「세모의 거리에서」 문태길의 「무수천」 김영홍의 「가파도」 등 15명 회원의 작품 74편이 실려있다.

『에비된 시간을 숨기며』

제주시조문학회의 세 번째 시집 『에비된...』이 도서출판 디딤돌에서 출간됐다.

이 시집에는 이용상의 「신촌 큰물」, 현춘식의 「산낙지의 꿈」 양영길의 「세모의 거리에서」 문태길의 「무수천」 김영홍의 「가파도」 등 15명 회원의 작품 74편이 실려있다.

『에비된 시간을 숨기며』

제주시조문학회의 세 번째 시집 『에비된...』이 도서출판 디딤돌에서 출간됐다.

이 시집에는 이용상의 「신촌 큰물」, 현춘식의 「산낙지의 꿈」 양영길의 「세모의 거리에서」 문태길의 「무수천」 김영홍의 「가파도」 등 15명 회원의 작품 74편이 실려있다.

『에비된 시간을 숨기며』

제주시조문학회의 세 번째 시집 『에비된...』이 도서출판 디딤돌에서 출간됐다.

이 시집에는 이용상의 「신촌 큰물」, 현춘식의 「산낙지의 꿈」 양영길의 「세모의 거리에서」 문태길의 「무수천」 김영홍의 「가파도」 등 15명 회원의 작품 74편이 실려있다.

『에비된 시간을 숨기며』

제주시조문학회의 세 번째 시집 『에비된...』이 도서출판 디딤돌에서 출간됐다.

이 시집에는 이용상의 「신촌 큰물」, 현춘식의 「산낙지의 꿈」 양영길의 「세모의 거리에서」 문태길의 「무수천」 김영홍의 「가파도」 등 15명 회원의 작품 74편이 실려있다.

『에비된 시간을 숨기며』

제주시조문학회의 세 번째 시집 『에비된...』이 도서출판 디딤돌에서 출간됐다.

이 시집에는 이용상의 「신촌 큰물」, 현춘식의 「산낙지의 꿈」 양영길의 「세모의 거리에서」 문태길의 「무수천」 김영홍의 「가파도」 등 15명 회원의 작품 74편이 실려있다.

『에비된 시간을 숨기며』

제주시조문학회의 세 번째 시집 『에비된...』이 도서출판 디딤돌에서 출간됐다.



달빛 아래 울려 퍼지는 투명한 풀벌레 소리 —

깨끗한 통화품질을 추구하는
한국이동통신의 소리입니다

개교 43주년, 창간 41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이동통신 제주지사

- '94 한국광고대상 스포츠·레저 전문지부문 은상
- '94 세계광고대상 금융서비스 부문 우수상
- '94 경찰광고대상 본상부문 동상